
2012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발행인
이주호

발행일
2012. 08

발행처
교육과학기술부

협조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록
KACES-1270-R001

문의
Tel. (02)2100-6987
Fax. (02)2100-6228
E-mail. danbi42@mest.go.kr
www.mest.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습니다.



제출문

「2012 예술인성교육의 비전 및 실천과제 개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자

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교수

김정희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승윤희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정여주 정여주 미술치료 연구소 소장

연구보조원

박혜영 이화여대 예술교육치료연구소 연구원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II. 예술교육의 실태 및 예술인성교육의 의미	9
1. 예술활동과 예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9
2. 예술인성교육의 정의 및 개념	31
3. 예술활동의 인성적 측면	9
III. 국내외 예술인성교육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12
1. 2009 개정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인성요소	12
2. 국내 예술교육 지원 사업	3
3. 국외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9
IV. 예술인성교육의 범위와 활성화 방안	33
1. 예술인성교육의 범위와 영역	33
2. 학교 예술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63
3. 부처별 예술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64
V. 예술인성교육의 로드맵 구축 및 운영모델	5
1. 총체적 예술인성교육 모델	35
2. 예술인성교육 로드맵	34
3. 예술인성교육 성과지표	5
VI. 결론	62
1. 예술인성교육의 역할과 기여	26
2. 예술인성교육의 활용영역 확장	36

표목차

< 표 1 > 예술활동과 인성요소	8
< 표 2 >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요소	2
< 표 3 > 학교급 별 예술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제 및 시간(단위)배당	4
< 표 4 >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	93
< 표 5 > 정부부처의 예술인성교육 실천사업	8
< 표 6 > 예술인성교육의 총체적 실천 모델	4
< 표 7 > 예술인성교육 로드맵의 성과지표	0

그림목차

< 그림 1 > 인성요소와 위기증후	7
< 그림 2 > 예술교육 모델학교 개념도	64
< 그림 3 >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개념도	7
< 그림 4 > 예술인성교육의 내용	43
< 그림 5 > 예술인성교육의 유형	53
< 그림 6 > 정부 부처의 예술인성교육 실천 방안	3
< 그림 7 > 예술인성교육 실천전략의 로드맵	7
< 그림 8 > 예술인성교육 달성 목표	59

□ 연구 목적

1) 예술교육의 비전 및 로드맵 구축

- 선진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배양 위해 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는 인재 양성 강조
- 예술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방안 마련, 학교예술교육에 사회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예술교육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을 배양하며 예술 응용 분야에 실질적,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2) 예술인성교육 위한 실천적 과제 발굴

- 기존의 현장감 결여된 이론중심 학교교육이 아닌 실천중심 과제 발굴
- 단기적 사업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사회문화 변화를 촉진하며 비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혁신적 과제 개발

□ 예술교육의 실태 및 예술인성교육의 의미

1) 예술체험과 예술교육 실태

-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시간 활용의 문제, 초·중고생의 예술활동 참여시간 부족, 예술 교육에 대한 편견, 임시위주 주지교과 학습의 편중에 따른 예술교육의 약화
- 예술교과군 이수시간 감소 및 운영의 문제, 예술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 예술 활동 공간의 부족, 지역조건으로 인한 문화예술교육 소외

2) 예술인성교육의 의미

- 개인적 측면에서의 인성
 - 예술 체험의 주체인 개인과 그 개인이 지닌 성격구조의 조화 촉진
 - 개인의 독창적 산물, 자신을 비언어적으로 표현, 자기이해 촉진
- 관계적 측면에서의 인성
 - 자신의 필요와 의견을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능력
 - 나-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3인 이상)라는 소집단까지 포함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성
 - 개인(나)과, 타인(너), 그리고 공동체(다함께)의 개념
 - 예술체험을 통해 집단 내의 사회문화적 인성 강화, 예술적 승화로 문화적 소양 배양

3) 예술활동의 인성적 측면

- 학습 기초능력 강화, 예술 활동을 통한 개별화 및 정체성 발달, 의사소통능력의 강화, 정서적 안정을 통한 창의성 발현 및 관계형성 촉진, 환경인식 및 사회성 강화, 사회적 문화예술의 가치 인식과 사회적 역할 인식

□ 예술인성교육의 범위와 활성화 방안

1) 예술인성교육의 범위와 영역

- 예술인성교육의 구성 요소
 - 예술교과중심내용
음악과 미술 각각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에도 활용 가능
 - 예술통합내용
예술교과 외의 다양한 예술 매체가 통합되어 보다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다 폭넓은 예술체험을 포함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확장된 예술체험 가능

○ 예술인성교육의 유형

- 기본형
학교교육과정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기본적인 예술교과교육을 중심으로 구성, 기본적인 예술교과교육 중심의 예술 수업 포함
- 확장형
기본적인 학교 예술교과교육 이외에 맞춤형 예술교육으로 프로그램이 확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 중심의 맞춤형 예술치유프로그램과 정서함양 예술프로그램 포함
- 연계형
예술 단체나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 예술 향유의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정부 부처의 예술활동 등 보다 넓은 영역의 다양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예술교육 프로그램 포함

2) 학교 예술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 예술교과를 통한 체험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
 - 예술교과교육의 내실화 및 정상화
예술교과교육 내용의 점검과 예술교사들의 안정적 지위 확보, 예술교과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의 확충 등 예술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필요
 - 교과-예술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일반학교 내 교과활동 연계 예술교육을 강화,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한 사고능력 향상과 인성의 계발을 도모하고 공교육 내 체험중심의 예술교육 환경조성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예술교육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예술교육 모델로 확장 개발, 이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예술의 다매체적 수용경험과 창작의 표현 작업 활성화
 - 음악실 및 미술실 구축을 통한 환경 구비
학교는 양질의 예술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공간을
-

마련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다양한 전시장과 공연장 등의 예술 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예술활동 참여 촉진

○ 교과외 예술교육활성화 실천 과제

· ‘1인 1기’ 운동 실천

모든 학생들이 최소 1개의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내재된 예술적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게 하며, 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예술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문화환경적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1인 1동아리’ 운동 실천

모든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과정 동안 최소 1개 이상의 예술동아리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심미적, 정서적, 전인적 성장의 기회 제공

· 예술동아리 활동의 콘텐츠 개발

학생들의 선호도와 관심 분야를 반영한 다양한 동아리 콘텐츠 개발. 음악활동은 뮤지컬, 아카펠라 합창, 오케스트라, 난타/사물놀이, 보컬 밴드 등, 미술활동은 사진, UCC 제작, 애니메이션, 만화, 컴퓨터 그래픽, 인형극 등이 가능하며, 학교 내 동아리 콘테스트와 축제 등 활용 가능

·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등의 인성문제, 학생·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술로 극복하기 위한 문제해결중심 맞춤형 예술교육, 예술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전 생애적인 예술교육의 기초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학교예술축제 정기화

다양한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교예술축제를 활성화, 학교 공간이 생동감 넘치는 예술표현의 장으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재미를 창출하는 경험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의 경험 제공

· 토요/방과후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및 학년별 특색을 살려 예술매체를 통한 비 교과활동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 및 교육 기부 사업 등 보다 조직적인 예술교육 운영 가능

-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실화
내실화된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들이 청소년 발달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 필요
- 예술매체를 활용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예술매체를 활용한 상담은 안정감과 심리적 이완을 유도하여 다양한 치료·교육적 효과 도출. 치료 및 교육적 성과를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
- 지역 예술교육협의회 구축
- 예술교육선도 교육지원청 지정 운영
예술교육선도 교육지원청을 지정하고 관할 지역의 예술교육 인프라 연계 및 활성화 전략 구축, 예술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구상 및 기획,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여 행정적 비효율성 최소화 및 학교예술인성교육의 내실화에 기여
- 지역사회 예술 자원 연계망 강화
- 지역사회 예술 자원 연계 및 공유
학교 밖의 지역 교육자원(대학, 예술인, 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생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반 구축으로 예술문화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 마련
- 기업 교육기부 활성화
초·중등 교육 현장에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가 기업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공생 발전을 도모하게 하며, 문화소외지역의 예술교육 기회 확장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일조
- 학교 메세나(Mecenat) 확대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기업기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으로써 기업 기여에 대한 실효성 입증

-
- 가정(1가 1기)에서부터 예술교육 시작

지속적이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인성교육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1가 1기 운동을 시작으로 가족 간의 음악 또는 미술을 공유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서로 협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

□ 결론

1) 예술인성교육의 역할과 기여

- 정서발달과 정서순화 교육의 기초와 중심 역할

예술교육의 강조와 다양화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정서순화에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역할 수행

- 밝고 건전한 학교문화 창조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정서표현, 정서순화 및 건강한 인성 함양의 밑거름으로써, 자기표현, 자주성, 정체성 발달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밝고 건전한 학교 문화 창조 및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의 아동·청소년 문제 예방에 기여

- 인성문제 위기증후 극복 제시

인성발달 문제 혹은 위기증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해방감과 자존감을 경험하게 하여 건강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정서·행동 문제를 대상으로 치유적 역할 담당

- 건강한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육성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관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교육 내의 개인차 극복 및 다양성 인정을 통해 전인적 인간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21세기형 인재육성

- 심미적 삶의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 문화국가 수립

예술인성교육은 내면의 심미적 욕구 충족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예술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통해 선진문화국가 수립에 기여

2) 예술인성교육의 활용영역 확장

- 예술인성교육을 전 생애영역으로 확대
학교 현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예술경험의 공유 및 문화의 장 마련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예술인성교육을 전 생애로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
- 예술인성교육을 위기예방과 치유적 기능으로 연계
예술인성교육을 전 생애 교육으로 확장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 예방 및 병리적 상황에 대한 치유적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 각 부처간의 유연하고 통합적인 연계를 통한 유기적 발전 필요
- 예술인성교육을 세계문화교류로 확대
비언어적, 범세계적 예술의 특성은 전 세계적 예술문화 교류가 가능하게하며, 예술인성교육으로의 확장은 세계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마련 및 세계문화교류 확대의 기회 제공

Abstract

□ Research

1) Research

Personality and character traits have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virtues in our tradition and society. However, this virtue has been underestimated in the contemporary society shadowed over by self-centered success and achievements. This has led to increase of violence in education setting and loss of ethical conscience. In the midst of these worrisome changes, arts has been used as a therapeutic and healing tool for student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creative activities. Arts was most efficient medium for including balanced growth in developmental domains, which are body, mind and spirit conforming to sound personality.

In order to facilitate the personal growth through arts, various arts education has to prosper in school setting meeting student's taste, interests and needs. For this to happen, a functional and efficient arts education model has to be formulated based on the essential intra and extra school resources. With this model, short and long terms goals and its road-map can be developed.

This study examined basic premise of developing arts education model to foster student's well grounded personality traits and strategies to implement this model in schools. To build this model, firstly various facets of personality and arts were examined to delineate relevant relationship among them. Based on this concept, activities and programs were developed for school setting. Third, resource networking strategies were formulated to connect available resources including financial, human, physical, and professional

assets in the community to enable ongoing support of the programs. Lastly, the study examined both short and long-term goals in links with other government bodies.

Being engaged in arts experience prompts various cognitive, physical and social interaction in both intra and interpersonal level. School arts education can be provided in three folds: One through the curriculum either as an art class or subject-integrated art class. Second would be creative and nonverbal activities with art which will prompt children to develop balanced skills other than academic concepts. The school should be provided those who are in need of emotional and behavioral intervention in the after-school setting. Also various types of arts activities should be available beyond the school wall interacting with the community such as artists and art centers.

Arts education project can pursue vivid goals give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These project include “1Family-1Activity” “1Person-1Activity Project”, and “Art Integrated Curriculum Programs”. Government bodies can also carry out art related projects within their project scope. These projects need to be conscious of concrete outcomes and proceed accordingly. The road map include short, middle, and long term achievement objectives in order for the government bodies to verify the development of its progress. The road map is identified based on the number of schools administering the project and the level the community is utilizing its resource for arts education purposes.

Arts education not only facilitates positive emotional stability but also sound relationship building among the peers and adjustment in the school setting. Various arts activities will help students to gain sense of arts literacy and learn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is will contribute to one's growth a sound social agent leading the community with healthy sense of belong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성은 전통적인 예(禮)와 도덕윤리를 추구하며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기계화 사회의 도래로 물질주의, 성과중심, 개인중심, 핵가족화, 경쟁의식이 심화되면서 타인존중과 배려 및 공동체 의식이 퇴색되고 인성 가치의 중요성도 빛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비인성적 문제 및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가정, 학교,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업성과와 입시위주 중심의 학교 교육과 도시, 지역 간 학력차이에 대한 경쟁심 강화가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오늘날 언어적, 신체적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 문제, 성도덕의 문란 등 많은 문제가 교육의 장(場)인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락이나 대중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풍부한 정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은 건전한 학생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신체, 언어,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양종모, 2012). 학교 폭력 및 부적응과 같은 학생들의 정서 행동 문제가 다양해지고 연령 또한 낮아지는 심각한 현상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2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주제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6,7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9.29점으로, 2009년 64.3점, 2010년 65.1점, 2011년 65.98점에 이어 4년 연속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2012).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18.32%가 ‘있다’고 응답해 중학생(13.07%)과 고등학생

(6.21%)보다 비율이 높았다. 가해 경험도 초등학생(10.66%), 중학생(7.75%), 고등학생(3.75%)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유경험 학생들의 연령이 심각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의 가출 충동과 자살 충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5명 중 1명의 초등학생이(20%)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적어도 10명 중 1명은(10%)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조선일보, 2012.5.6).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개인적, 관계적 및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성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예술은 인간의 사고와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총체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법칙, 원리, 규칙 등의 추상적인 개념 형식으로 전달되는 타학문들과는 달리 예술의 표현방식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또한 편중된 지식이 아닌 지, 덕, 체의 균형 있는 발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신세례, 2011). 예술의 이러한 전인 교육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성의 몰가치 현상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의미를 지닌다.

예술교육은 예술의 심미적 경험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계발하고 인성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체계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의 힘을 일찍이 접한 서구에서는 1850년대 부터 예술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 인성변화의 우수성과를 보고하고 있다¹⁾.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초·중등학교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제안하고, 예술교육이 인성 함양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중심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수동적 지식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예술을 접목한 융합교과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 주도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인성에 미치는 예술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성공적인 우수모델로 인정받은 미국의 ‘링컨 센터 예술교육 프로그램(Lincoln Center Institute’s Arts Education

1) 부록 1 참조.

Program)’과 ‘아츠엣지 프로그램(ArtsEdge Program)’, 영국의 ‘크리에티브 파트너십 프로그램(Creative Partnerships Program)’,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 예술교육 프로그램(Annantalo Art Center’s Arts Education Program)’, 일본의 ‘신세기 아트 플랜’ 등은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 정부부처 지원 등을 연계하여 최상의 예술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왔다(석문주 외, 2010). 우리나라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덕목으로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주요 목표로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예술이 지닌 심미적,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현장 또는 학교의 물적·공간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예술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학생들이 예술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술의 심미적 체험에 근거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개인적 인성발달과 변화에서부터 관계적 변화까지를 도모하는 체계화된 학교 내외 예술인성교육 연구와 체계구축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예술의 전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예술인성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술이 갖는 인성교육의 기능을 토대로 새로운 예술인성교육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고찰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과 인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예술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예술교과의 인성요소들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예술교육 활동을 조사하고 제안한다.

셋째, 예술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 정부 부처의 역할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인성교육 로드맵의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과제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성교육을 위해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풍족한 예술 환경이 구비될 수 있는 유용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체적 예술인성교육 실천전략은 단기적 예술인성교육 과제에서부터 예술을 통해 사회 문화의 변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혁신적 과제까지 연계될 수 있다.

Ⅱ. 본 론

1. 예술교육의 실태 및 예술인성교육의 의미
2. 국내외 예술인성교육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3. 예술인성교육의 범위와 활성화 방안
4. 예술인성교육의 로드맵 구축 및 운영모델

II. 예술교육의 실태 및 예술인성교육의 의미

예술인성교육은 예술이 지닌 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토대로 교육현장 또는 학교의 물적, 인적, 공간적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와 차원의 예술활동 또는 교육을 의미한다. 예술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의 심미적 체험에 근거한 구조화된 예술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변화에서 관계적 변화까지 도모하는 체계화된 학교 예술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예술인성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예술인성교육의 정의, 개념 등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한다.

1. 예술활동과 예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시간 활용의 문제

2012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5.2)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용은 TV 및 DVD 시청이 6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게임 등’이 49.6%, ‘사교 관련 일’이 3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활동들이 개인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건전한 여가 시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적극적인 예술 체험 활동이 장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초·중·고생의 예술활동 참여시간 부족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예술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의 지원 확대가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학생은 81.0%, 학부모 89.6%, 교사는 92.0%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평소 예술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질문에 학생 48.0%, 학부모 58.5%, 교사 74.2%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학생과 교사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줄어든다는 답을 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급별 응답에서 초등학교 63.6%, 중학교 79.4%, 고등학교 79.6%가 예술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학생 및 학부모에 비해 예술활동시간 부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예술활동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예술활동과 예술교육에 대한 편견

전인적 성장을 위해 예술활동 및 신체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 학생들은 예술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예술활동이나 교육을 예술적 재능이 있는 일부 학생들이나 어느 특정 계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며 진정한 예술활동이나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한 일부 세대에서 여전히 예술활동이나 교육에 대한 편견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들은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인성교육으로서의 예술활동 및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인성교육의 확대를 지향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 입시위주 교과 학습 편중에 따른 예술교육 약화

통계청 보도자료(2012.2.16)에 의하면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77.6%로 가장 많고, 선행학습(52.1%), 진학준비(29.7%) 순으로 예술교육 보다는 주 교과(수학, 영어 등) 학습에 편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 교과 중심의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취학 전부터 평가 중심의 과제 수행에 길들여지고 자기표현과 독창성을 실현하는 예술활동 체험은 오히려 시간낭비라는 인식을 갖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예술에 재능 있거나 예술활동을 선호하는 학생들보다는 입시관련 교과를 더 잘하는 학생이 인정받는 환경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 예술교과군 이수시간 감소 및 운영 문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예술교과군 이수시간이 544시간(음악,

미술 각각 272시간), 중학교 예술교과군 이수시간이 272시간(음악, 미술 각각 136시간)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편성은 중학교의 예술교과군 이수시간이 각각 주 2시간에서 주 1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중학교 2-3학년의 경우 예술교과 시간이 50% 감소한 것이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인성교육차원에서 예술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술교육 이수시간 감소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한 결과, 현재 중학교 2-3학년의 경우에는 예술적 체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술교과교육을 통한 양질의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집중 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도덕, 역사, 사회, 음악, 미술, 한문 과목은 두 학기 동안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악, 미술과목 등은 1개 학년에 전 학년 과정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중학교 3년 동안 받아오던 예술교육이 2년 동안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현재는 집중이수제가 완화되었지만 이로 인해 예술교과 운영에 혼선이 생기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예술체험의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예술교과 담당교사들이 강사로 인식되면서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예술교과 교수·학습방법의 문제

예술교육을 통한 심미적 경험과 정서적 안정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감성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한다. 학생들이 어떠한 예술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예술적 활동의 질적 수준과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결정된다. 예술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외형상의 기능교육 위주가 아닌 자발적 활동과 내면적 표현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예술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이 체험중심이기 보다는 과도한 비중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질 높은 예술교육을 체험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음악수업은 많은 경우에 교사들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모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일적이고 비음악적인 수업으로 인해 감성과 체험 중심의 예술교육이 훼손되고 있다. 미술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인성교육 요소를 미술교과 내용에 담아내기 위해 자립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기조절 학습모형,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길러주는 협동학습 모형 등을 미술수업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경험과 표현, 감상 활동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수업을 통해 자기 성찰과 인식, 의미

발견과 가치 부여 등이 학습활동에 포함되도록 한다.

○ 예술활동 공간의 부족

예술교과 교실은 예술교과의 활동적·표현적 특성과 다양한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이어야 한다. 현재, 학교의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 예술활동을 위한 환경조건은 미흡한 수준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학교에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과 점유되기에 온전히 학생들의 예술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양질의 예술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활동과 연주를 위한 공간, 연습이 가능한 공간,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전시와 감상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여러 유형과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도 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조건으로 인한 문화예술교육 소외

일반 학생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 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화예술활동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교육적 요인은 이와 같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심리적·문화환경적 이유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역적·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되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자생적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2. 예술인성교육의 정의 및 개념

예술인성교육은 예술의 심미적·정서적 특성과 문화사회적 역할 및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예술교육으로, 학교 및 학교 외 교육현장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차원의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미적, 정서적 체험에 근거한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개인적 인성발달과 변화에서 관계적 변화까지 도모하는 체계화된 학교 내외 예술인성교육 연구와 체계구축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인성교육은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예술체험의 주체인 개인적 측면, 집단적 체험을 통한 관계적 측면, 다차원적인 공동체 예술체험을 통한 사회적 측면에서 관계된다. 이들 측면들은 개인 내적, 구성원 간 및 사회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러한 예술매체의 인성변화 효과는 음악과 미술의 특성으로부터 매개되며, 예술매체를 활용한 경험은 수용적 체험으로부터 표현적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성취 영역을 포함한다.

1) 개인적 측면

개인적 차원에서 인성은 예술체험에 주체가 되는 개인과 그 개인이 지닌 성격과 조화를 촉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는 예술의 주체자가 예술체험을 통해 정서표출과 정서순화, 나아가 자아인식(self-awareness)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유아기부터 노래, 그림, 춤 등을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는 성장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환경과 연결되어 정서함양, 정서순화 능력으로 연결되는 인성과 정서교육의 발달을 경험한다. 예술체험을 통한 자기표현은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욕구와 창의성 발달 및 자아인식과 자기이해의 근거가 된다.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이러한 욕구와 자기 인식 및 이해 과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이는 예술의 사회성, 윤리성, 문화성, 역사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예술교육은 이 요구에 대한 충분한 수용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며,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비판받기 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예술 주체자는 관계 이전에 스스로를 포용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꾸준히 탐색하고 계발하는 태도를 발달시킨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자기 조절, 자아존중감, 정체성을 함양하게 된다.

예술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이라도 개인의 독창적인 산물이므로 예술적 작업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독려하는 경험이 따른다. 예술은 자신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인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것이 각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예술 매체를 선택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 선호, 재능을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선호도를 고려한 매체를 중심으로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 연주하고 싶은 것 등 스스로의 욕구를 승화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2) 관계적 측면

인성에서 개인이 지니는 인간 관계적 면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관계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은 상대의 영역과 내 영역을 분별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건전한 인성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예술은 연령,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언어적 관계의 기반이 된다.

표현력은 자신의 필요와 의견을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전달하며 상대로 하여금 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고, 소통 능력은 화자와 청자의 의도를 상호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예술은 주어진 주제에 따라 심미적 작업을 수행하는 실질적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표현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유되는 표현 매체와 주제, 그리고 표현 방법을 선택하여 예술적 매체 그 자체와의 관계, 예술에 담겨지는 소재와의 관계, 그리고 참여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다양한 차원의 관계 형성을 체험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력은 자신의 욕구 규명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술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이는 이성과 감성을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예술작업의 기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력은 자신의 내적인 충동 조절, 이성적 사고력의 강화를 유도한다.

관계적 인성은 작게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크게는 우리라는 집단 내에서 그 집단의 통념과 가치관, 그리고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포함한다. 물론 이 집단 내에서는 개인내적인 자신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도 포함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리더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문제해결력도 인성적 요소로 볼 수 있다.

관계적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사소통이다. 예술인성교육은 예술이라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형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친구, 교사, 가족, 성인들과 언어적 대화에서 신뢰와 상대방 이해의 어려움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술은 학생 자신의 욕구, 갈등, 판타지를 용이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예술활동 중에 작품을 통해 자신의 표현뿐 아니라 타인의 작품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상호간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예술의 비언어성과 상징적 표현성은 구체적인 관계능력 및 관계개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활동에서 보여주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인성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사람들과의 공동체 의식과 이를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나)과, 타인(너), 그리고 공동체(다함께)의 개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인식 역량이 될 수 있다.

소속감은 타인과 동질성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지혜로서 인격 형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동질성과 공통점을 바탕으로 타인과 같이 그 사회 내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이를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은 대집단의 관계 형성을 통해 보다 넓은 환경 인식과 그 안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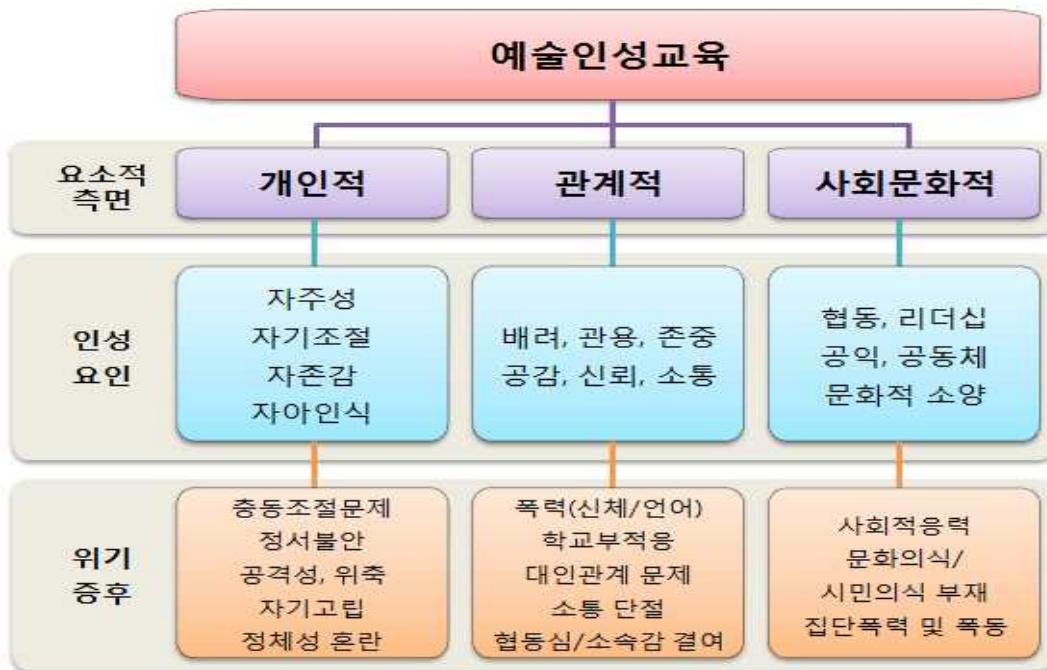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인성요소에서 문화적 소양(literacy)도 매우 중요한 인성요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적 소양이란 소통을 목적으로 한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문화를 활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화, 일상성에 대한 가치 탐구 등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김염, 2010). 글로벌 시대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 내에서 열린 마음과 타민족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수용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소양은 매우 중요한 인성요소이다. 예술 체험을 통해 집단 내의 정신세계, 사고, 가치관, 윤리 등 다양한 소재들을 인식하여 이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문화적 소양의 배양과 함께 사회문화적 인성 강화를 가져다준다.

개인의 표현력은 학교 내에서의 또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타인 과도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을 통한 이러한 사회화는 지역사회 주민 또는 예술가와 자신의 예술적 기호를 나누는 과정에서 훈련되며 이를 통해 문화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평등이 요청되는 시대에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예술교육은 관계성과 의사소통능력, 문화이해, 문화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술을 통한 공동협력, 공동체 의식은 예술인성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연결되며 일반인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성문제 및 인성위기 측면

인성에 대한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발달은 예술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성의 문제 및 인성발달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술을 통하여 극복하는 부분도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시도되는 근저에는 인성발달에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도와 정상적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며 잠재된 문제들을 진단하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예술의 치유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인성문제를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성요소와 위기증후

인성요소들이 결여되었을 시 나타나는 증후 또는 위기는 결국 관계 형성과 사회적 적응 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데, 영역별로 분류해서 설명하자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충동문제, 불안, 자기고립, 정체성 혼란, 공격성, 위축 등과 같이 정서문제가 내재화되거나 외현화 될 수 있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소통 능력으로 인해 언어 또는 신체 폭력, 왕따 등 학교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후 성장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민의식과 문화의식의 결여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추는 데에 어려움을 갖으며 타인과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인성요소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개인적인 인성요소는 창작과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관계적 요소는 2명 이상 합주하고 협동 작업하는 경험을 통해서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보다 큰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경험하고 공동의 관심사인 예술 작업을 공유하면서 관계 형성을 해나가고 과제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다른 점을 수용하며 맞추고 조율하는 기술도 배울 수 있다.

<표 1> 예술활동과 인성요소

인성역량	구성원	핵심요소	예술활동의 예시	
			음악	미술
개인적 인성	개인적 차원에서의 '나, 자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적 체험 · 자주성 · 자기조절 · 자존감 · 자아인식 ·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독주활동 · 음악 감상 · 개인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작업: 인성 핵심요소 주제 활동 · 회화, 조소, 공예,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관계적 인성	관계적 차원에서의 '나와 너,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 · 관용 · 존중 · 공감 · 신뢰 ·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 또는 악기로 소집단 표현: 2중창/2중주/합창/합주, 타악기 활동(사물놀이/난타), 밴드동아리 활동 · 소규모 공동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작업: 우리학급, 우리 학교와 관련된 주제 표현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사회- 공동체적 인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모두, 다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 · 리더쉽 · 공익 · 공동체 · 문화적 소양 (Liter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나 악기로 대집단 표현: 다양한 합창/합주활동, 뮤지컬활동) · 대규모 협동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작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제 표현 (벽화, 사진, 영상, 다큐 제작과 설치)

3. 예술활동의 인성적 측면

○ 잠재된 학습동기 촉진으로 학습기술 및 인지기능 강화

표현적이고 수용적인 다양한 예술경험은 아이디어 구상, 응용, 평가 및 비판 능력이 향상되며,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도구 활용력, 집중력, 시공간 개념과 같은 추상적 지각력이 발달된다. 더욱이 다른 학습 영역과 비교하여 예술체험은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동기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학습기술에는 정보의 기억, 저장, 인출, 응용력, 문제해결력, 집중력, 추리력, 사고력 등 다양한 세부 인지기술이 포함되며, 예술매체를 통한 성공적인 과제 수행경험은 이러한 학습기술의 제 영역을 고루 발달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는 계속되는 실패감과 동기저하를 반복하는 학습무기력과 학습부진에서 탈피하거나 예방하며 잠재된 학습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 비언어적 표현의 활동을 통한 고른 정체성 발달

예술매체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 활동으로 다각적인 형태와 접근에서 변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인에 따른 표현은 잠재된 표현 에너지를 가시화시켜주며 개인적 선호와 내재된 사고, 판단, 의도, 지향 등을 예술적 산물로 승화시켜준다. 또한 다양한 예술 창작은 개인만의 작품이므로 성장기에 필요한 개성화 또는 개별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비언어적 특성을 가진 예술활동은 학령기 학생들의 정체성 발달에서 잠재된 성격과 인성적 측면을 표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 예술은 자기조절력 배양 및 소통능력 강화의 탁월한 수단

예술 중심의 활동들은 충동과 관련된 에너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에 효율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활동의 구조적 특성은 건강한 방법으로 부정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충동성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조절이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외부 환경과 소통하는 기술에 문제가 있는데, 이들에게 예술활동은 자기에너지를 다루고 조절하도록 격려한다. 따라서 예술활동은 자기통제력과 조절능력을 배양시키는 탁월한 방법으로서, 이는 공동체 생활에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개인적 창의성 발현을 통한 관계 형성 기술 강화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내면에 위축감, 심리적 억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는 예술활동을 통해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다. 예술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켜주며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감, 성취감을 경험시키며, 내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예술활동들은 유희, 즐거움, 보상, 자유로움과 같은 발산적 시간을 제공하며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사고, 감각, 조직화, 관계 형성 기술을 도모해준다. 이러한 체험은 개인의 창의적 성격을 발현시키는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예술 작업에 필요한 소통, 협동, 문제해결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강화시켜준다.

○ 예술 협동 활동은 타인 및 환경 인식과 수용의 장

협동 활동은 타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 수용력을 키워주는 활동이다. 예술활동은 협동 활동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체험을 통해 환경에서 제공된 제한적이면서도 조건적인 기준을 인식하게 되어 현실감각이 향상된다. 타인과의 관계형성 문제 또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지닌 학생 및 청소년들은 예술의 공통 관심과 주제를 다루는 활동을 통해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사회 안에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외부를 수용하는 방법들을 습득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예술적인 공동의 목표를 함께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타협과 조율, 협력을 거치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성이 배양된다.

○ 공동체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사회적 역할 인식

문화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고 비평하는 예술활동은 개인으로서 문화향유자가 아닌 사회적 유산으로서 문화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회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이끈다. 예술창작 작업은 그 자체가 창작물에 대한 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비평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반추해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서 역할을 함께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Ⅲ. 국내외 예술인성교육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1. 2009 개정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인성요소

예술의 심미적 체험과 가치 인식의 밀접한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되어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인간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복한 삶과 가치 추구를 위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여러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예술교육을 통한 심미적 경험과 미적 안목의 형성은 인간의 생명, 성장, 행복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하며, 자신을 조절하면서 판단하고 상식적인 타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품성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예술교육은 예민한 감각과 높은 감수성으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지속적으로 사실과 현상들을 구조적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둔화되고 있는 인간의 감정적, 감각적 반응을 다시 세분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특히 예술교육에서 즐거움이 내재되어 있는 심미적 경험을 통해 감수성과 지각력을 정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에서 자발적 표현은 자기성찰의 기회로서 자신을 인식하면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교과교육을 통한 ‘바르고 아름다운 인성’은 바로 이러한 ‘심미성’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미적 경험을 통한 ‘심미성’ 계발은 예술교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던 핵심 목표로 예술교과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한다. 예술교과에서의 미적 경험은 학생들을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보존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인간의 잠재되어있는 모든 감정이 예술로서 표출되면서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한다.

미적 경험을 통해 계발되는 심미성에는 예술교과교육의 핵심 요소인 미적 감수성, 미적 인식, 미적 판단 등이 포함 된다. 예술교과교육의 본질적 특성인 심미성을 중심으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예술교과교육의 인성요

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음악과 교육과정 그리고 미술과 교육과정의 핵심은 예술의 심미적 체험과 가치 인식에 있다. 예술교과에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성요소는 정서안정, 자아인식, 자기성찰, 자기표현, 자기조절, 자존감, 자발성, 자주성 등이 있다. 집단적 체험을 통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인성요소는 공감, 배려, 소통, 나눔, 존중, 관용, 협동, 수용 등을 포함한다. 보다 확대된 공동체적 예술체험을 통한 리더쉽, 공동체 의식, 글로벌마인드, 문화적 소양 등은 예술교과의 사회문화적 인성요소에 기초가 된다.

<표 2>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요소

예술교과교육의 핵심	예술의 심미적 체험과 가치 인식		
↓			
예술교과의 인성요소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정서안정, 자아인식, 자기성찰, 자기표현, 자기조절, 자존감, 자발성, 자주성	공감, 배려, 소통, 나눔, 존중, 관용, 협동, 수용	리더쉽, 공동체 의식, 글로벌마인드, 문화적 소양

1)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요소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음악교과를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음악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음악교과는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미적감수성’, ‘미적인식’, ‘미적 판단’, ‘정서안정’, ‘자기표현’, ‘자존감’ 등의 개인적 인성요소들, ‘존중’, ‘배려’, ‘공감’, ‘소통’ 등의 대인 관계적 인성요소들, ‘공동체 의

식', '문화적 소양', '글로벌 마인드' 등의 사회 문화적 인성요소들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한다.

2) 미술교과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요소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 탐구 능력, 진로개척 능력, 창의성, 도전 정신,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 수용력, 의사소통능력, 세계 시민의식, 배려와 나눔의 인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위 목표로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 형성'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교과의 내용을 '자기표현 활동을 통한 자기이해와 조절',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상호작용',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삶에 대한 관심과 계획', '문화적, 시각적 소양', '문화적 공감과 체험을 통한 소통과 이해 능력'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 구성 되면서, '미적감수성', '미적인식', '미적판단', '정서안정', '자기표현', '자존감', '존중', '배려', '공감', '소통', '공동체 의식', '문화적 소양', '글로벌 마인드', 등의 인성교육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예술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편재 및 시간(단위) 배당

현재 초·중·고 학교급 별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편재 및 시간(단위) 배당은 <표 3>과 같다. 초등학교의 예술교과군 이수시간은 544시간으로 음악과 미술 각각 272시간이며, 중학교의 예술교과군 이수시간은 272시간으로 음악과 미술 각각 136시간이다(중학교의 경우, 2-3학년에서는 음악과 미술 각각 주 2시간에서 주 1시간으로 감소한다).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예술교과군 이수단위가 10단위로, 음악과 미술 각각 5단위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은 초등학교 408시간, 중학교 306시간, 고등학교 24단위로 운영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3> 학교급 별 예술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편재 및 시간(단위) 배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이수시간	4,148 시간	3,366 시간	총 이수단위	204 단위
예술교과군 이수시간	544 시간	272 시간	예술교과군 이수단위	10 단위
음악교과 이수시간	272 시간	136 시간	음악교과 이수단위	5 단위
미술교과 이수시간	272 시간	136 시간	미술교과 이수단위	5 단위
창의적 체험 활동	408 시간	306 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	24 단위

예술교과에서 심미적 경험이 창의·인성교육의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 방과 후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 이후에도 예술적 향유가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포함되기 위해서 예술교육의 자발적인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시간은 정보통신 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 관련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주당 3시간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안전교육, 성교육, 비상사태 교육 등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남은 창의적 체험시간은 대부분 학교에서 자율학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소수의 중학교만이 사진, 연극 등과 같은 내용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예술 강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조대훈 & 이수미, 2012).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4호, ‘12.7.9)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부가 최근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보내 기존 교과시간을 줄여 주당 1시간 체육을 확보하거나,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부를 스포츠클럽에 배정하는 방안을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인성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도

는 좋으나 특정 활동을 의무화 시키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율적으로 예술 또는 스포츠를 선택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운영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예술교육 지원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해 ‘초·중등학교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2010)’을 제안하고, 인성 함양에 있어 예술교육이 핵심요소이자 주요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예술교육사업들을 시도하였다²⁾.

1) 예술중점학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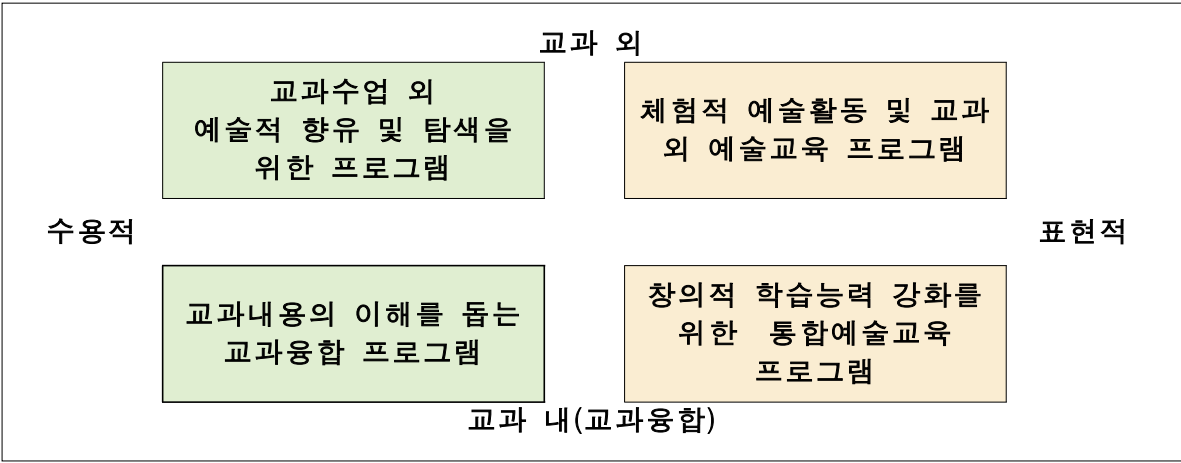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술중점학교 사업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특성화된 예술교육을 시행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미술·공연/영상 등의 집중 운영을 통해 예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2012년도 현재 23개교의 82학급에서 약 2,3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기회 확산은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술교육선도학교 사업 중에서 예술수업 모델 개발보급 및 예술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일반학교 내 교과활동과 연계된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그림 2]와 같다. 예술 선도를 지향하는 학교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용적 예술체험에서부터 표현적 체험까지를 제공하고 교과내 예술과 타교과를 융합하는 수준에서부터 교과외 예술 프로그램

2) 부록 2 참조.

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2011년에 지정된 예술교육 모델학교 21개교와 2012년에 추가 선정된 예술교육 선도중학교 50개교를 합해 총 71개교가 예술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림 2] 예술교육 모델학교 개념도

3)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2011년부터 지원되는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학교가 가진 공간적, 행정적, 인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지원함으로써 체계화된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균등한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악기를 접하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며 불균등한 교육 기회를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능력 향상과 인성함양을 도모한다.

4) 중학교 예술동아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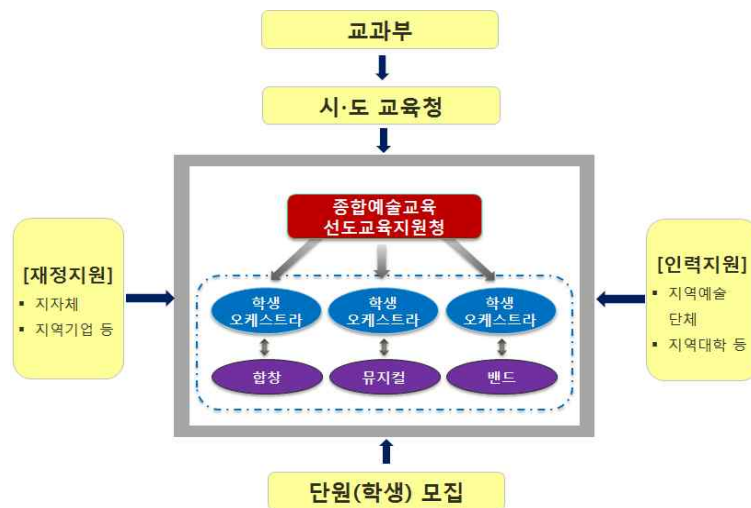
중학교 예술동아리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에 따른 예술인성교육 핵심 사업(‘12.02)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적성탐색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학교폭력 위험 지역과 예술활동이 저조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교육청 별로 사업을 배정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동아리를 지원한다. 특히 운영학교마다 ‘학생 예술동아리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호도와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지원해준다.

예술동아리 운영 분야(2012년도 사업 예시)

- ◆ (미술) 영상, 회화, 도예, 조각, 공예, 만화/애니, 사진, 실험창작(액션페인팅, 퍼포먼스 등)
- ◆ (음악) 아카펠라, K-Pop, 통기타, 밴드, 송라이트(작곡/작사), 음악극, 풍물 등
- ◆ (공연/영상) 댄스, 비보이, 연극, 영화, 행위예술(연극+음악, 연극+미술) 등

5)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사업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은 지역의 예술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학교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향상과 더불어 인성 함양, 교육 불균등 해소를 도모한다. 성공적인 예로는 2012년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들을 중심으로 전국 20개의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합창, 뮤지컬, 밴드 등의 분야들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지원하였다([그림 3]참고).



[그림 3]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개념도

6) 예술꽃 씨앗학교

예술꽃 씨앗학교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관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의 모델로 육성하고자 시작되었다. 당시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전국 10개교로 1,666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10개교는 음악, 미술, 영화, 무대예술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기

관 및 문화예술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7) 아츠-에코(arts-echo)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아츠-에코 프로젝트는 다양한 예술 장르 간 통합 교육을 통하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인적 문화향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츠-에코 프로젝트는 학생과 청소년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른 교육목적과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 · 청소년 arts-echo

“예술로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며 미래를 꿈꾼다.”

-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초등)
- 교과교육-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중, 고교생)
-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8) 토요문화학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우리나라 국·공립기관,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학령기 모든 학생·청소년과 가족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마음껏 접하고 체험, 실연, 캠프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있다. 공연예술, 조형예술, 시각예술, 인문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초 이해에서부터 사회와 삶을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술교육선도학교(토요예술학교 사업 예시)

구분	주요 내용	참여 예상 인원	시기	횟수
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화의 기초, 만화그리기, 주제 구상(학생) 청소년 멘토 특강(학생) 만화활용 교실수업개선 연수(교원) 	교육기부자(641명) 프로그램 참여자(19,840명)	매월 1~4(토) 16개시도	월4회
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메이션의 기초, 만화그리기(학생) 그리기, 주제 구상, 말하기(학생) 애니메이션 활용 교실수업개선 연수(교원) 	교육기부자(248명) 프로그램 참여자(7,740명)	매월 2주(토) 16개시도	월1회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의 기초, 시나리오 작성 등(학생) 영화(영상)활용 교실수업개선 연수(교원) 학교를 찾아가는 영화관(학생, 학부모) 	교육기부자(42명) 프로그램 참여자(17,560명)	매월 3주(토) 서울, 인천, 경기	월1회

3. 국외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1) 국외 예술인성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특성 분석

가. 미국 : 학교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연방정부 수준의 지원과 협력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은 예술이 학생과 청소년교육의 기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소양은 물론 창의적이고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기관이다. NEA는 예술교육에 관한 교육적 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학교, 지역사회 예술단체, 주립예술진흥기관 등 관련 담당자 및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정책에서 가장 효과성을 담보하는 요소로 인식하여 진행한다. 또한 교육부 뿐 아니라 법무부, 건설 및 도시개발부,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 등과도 강한 협력을 이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창의적인 예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회문화예술교육 체계화 연구, 2008).

○ 예술인성효과를 위한 기획 및 개발 노력 : 링컨센터 예술교육프로그램

링컨센터교육원(Lincoln Center Institute, LCI)은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예술가 상주프로그램(Artist-in-Residence Program) 체제를 중심으로 한다. LCI의 목적은 예술교육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일반과목을 전공한 교사들의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을 돕고 예술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을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예술경험을 통한 예술적 인식능력의 배양과 자신감, 정서적 안정, 학습동기유발, 창의성 등 예술교육이 주는 여러 가지 전인적인 교육효과를 자극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술가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사와 함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각 학교현장의 상황에 맞는 수업안과 수업활동을 짜고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LCI 프로그램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시설이 모두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므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예술교육이 가능하다.

나. 영국 : 창의성 배양 중심의 예술인성교육

창의성 배양은 영국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강조하는 목표이다. 교육과 예술문화 활동의 접목은 이러한 창의성 배양 프로그램들의 접근 방법이 된다. 이를 이끄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s, CP)을 예로 들 수 있다. CP는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프로그램으로 정부기관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가 추진하고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지원한다.

○ 창의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 영국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경제 문화적으로 낙후된 35개 지역에서 약 2500여개의 학교가 선정되어 현재까지 약 55만명의 학생과 5만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CP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고, 모든 학생이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P는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의 요구에 적합한 기관이나 예술가들이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상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학교 연계 프로젝트에는 창의성 학교(Schools of Creativity), 개혁학교(Change Schools), 탐구학교(Enquiry Schools)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다. 독일 :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는 문화예술교육

독일의 문화예술정책은 연방 정부에서 총괄하기 보다는 몇 개의 부처에서 분산되어 수행된다. 연방정부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환경, 기반 지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베를린 문화프로젝트는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예술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지원: 베를린 문화프로젝트

베를린 시내 50개 학교와 30개 예술단체, 25개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오감 자극 색깔 체험프로그램’, ‘아벤토이어 뮤지엄’, ‘신나는 즉흥연주’, ‘오페라와 연극의 밤’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수업 후에 차별없이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섞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한다. 특히 ‘신나는 즉흥연주’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음악 교사의 제안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물과 기구로 연주 할 수 있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라. 일본 : 문화적 감성을 깨우는 문화예술창조계획 ‘신세기 아트 플랜’

신세기 아트 플랜은 2002년에 12월부터 시행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의한 일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정책 중 하나이다. 이 계획은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 등의 자유로운 창조활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문화를 통한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세계적인 예술가, 신인예술가, 재능있는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오페라, 발레, 영화 등에 중점을 둔 최고수준의 예술 창조, 세계로 나아가는 신인예술가 육성, 어린이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추진 등 일본의 예술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창조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활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어린이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가하고 체험을 통해 감성이 풍부한 성인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학교의 체육관이나 공립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의 감상, 예술문화단체 등에 의해 실연지도, 워크숍 및 예술문화단체와 공연에 참가함으로써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 및 전문예능 보유자 등을 출신지역의 학교 등에 파견해 어린이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예술가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문화 활동성과 발표를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화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종합예술제’, ‘전국 고등학교 종합 문화제 우수학교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권 안에서도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모델사업으로 지정해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Ⅳ. 예술인성교육의 범위와 활성화 방안

1. 예술인성교육의 범위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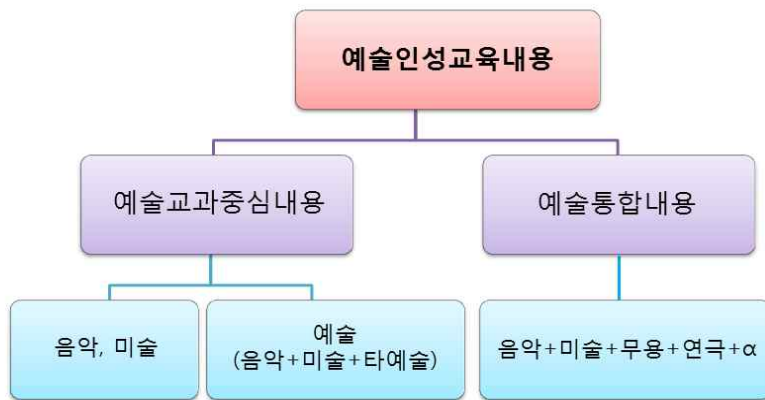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예술인성교육 사업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술인성교육은 크게 3단계로 접근될 수 있으며, 그 단계에 따른 구성원과 환경 그리고 접근은 점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1) 예술인성교육의 구성 요소

예술인성교육의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예술교과의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한 예술교과중심내용과 예술 및 타 교과 또는 다른 예술매체와 통합한 예술융합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예술교과중심내용은 음악교과와 미술교과 시간에 음악과 미술 각각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음악, 미술,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술 요소들을 통합하여 구성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교육현장에서 예술은 모든 교과에 연계할 수 있는 과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예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은 다양한 학습 영역을 융합하여 교육에서의 인성적 요인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술의 통합적 접목은 비언어적이고 감정적인 예술과 이성적 작업을 요구하는 타 교과의 만남을 통해 편중된 교육을 극복하며 인성적 측면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예술통합내용은 예술교과 외의 다양한 예술 매체가 통합되어 보다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에는 예술교과가 아닌 연극이나 뮤지컬, 영상 등 하나 이상의 예술 매체로 구성되어 보다 넓은 폭의 예술체험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통합내용은 학교 벽을 넘어 지역사회와도 연계되어 예술 축제(공연, 전시) 또는

문화 예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림 4] 예술인성교육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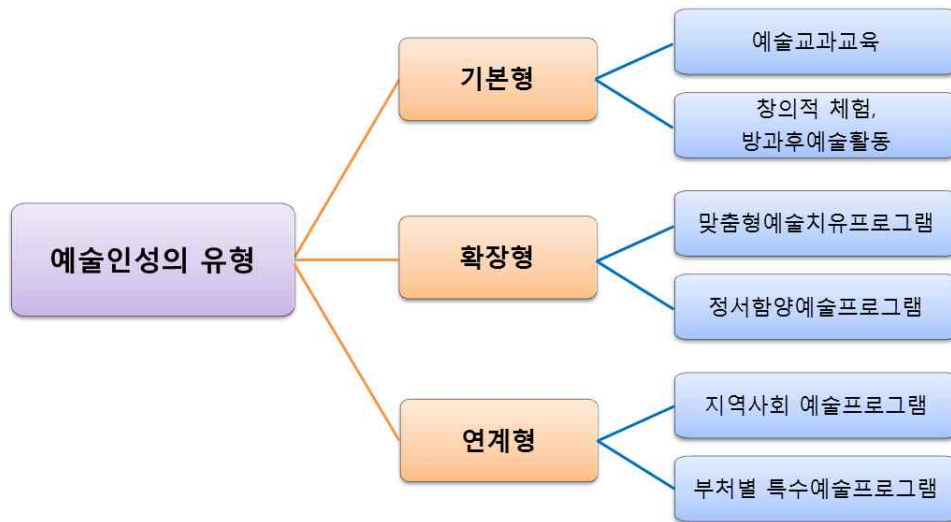
2) 예술인성교육의 유형

예술인성교육의 유형은 크게 기본형, 확장형, 연계형으로 [그림 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기본형은 학교교육과정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기본적인 예술교과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확장형은 기본적인 학교 예술교과교육 이외에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연계형은 예술 단체나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향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형에는 음악, 미술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의 음악, 미술 활동, 방과 후 예술활동 등 기본적인 예술교과교육 중심의 예술 수업이 포함되고, 확장형에는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예술경험을 통해 해소 및 승화할 수 있는 문제해결 중심의 맞춤형 예술치유프로그램과 정서함양 예술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연계형에는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에 따른 예술활동 등 보다 넓은 영역의 다양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기본형, 확장형, 연계형 예술인성교육은 예술 경험과 활동을 학교 밖의 환경으로 점차 확대, 발전시켜가며 모든 학생과 시민들에게 예술을 바르게 교육하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예술인성교육은 학교의 예술교육으로부터 국가 전체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함으로써 예술적 감성을

통한 인성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림 5] 예술인성교육의 유형

3) 예술인성교육의 유형, 학습모형, 내용

예술인성교육의 유형, 학습모형, 내용 등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기본형 중 예술교과 중심형은 음악, 미술 교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며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자기 조절 학습모형이다. 예술교과를 보다 새롭게 구상하고 학생들의 요구(needs)에 따라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다.

기본형 중 창의적 체험, 방과후활동 중심형의 내용은 예술교과통합 또는 예술교과에 타예술 분야의 내용이 추가되어 구성되며 효과적인 협동 학습모형으로 제공된다. 이 모형에서는 방과 후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최대한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가능한 또래 관계 기술을 강화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협동하도록 돕는다.

반면 확장형의 내용은 지역 예술단체 및 사회문화 단체와 연계되어 여러 예술분야가 통합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학습모형이 적합한 예술인성교육 유형이다. 학교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활동 내용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강화시켜준다.

2. 학교 예술인성교육 활성화 방안³⁾

가. 예술교과를 통한 체험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

○ 예술교과교육의 내실화 및 정상화

학교 예술교육의 목적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인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예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실천적인 예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교의 예술교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예술체험’의 기회 제공이다. 예술활동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 소통하는 능력은 지속적인 예술체험의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예술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공교육으로서 예술교과의 내실화 및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교과교육 내용의 점검과 예술교과 교사들의 안정적 지위, 예술교과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의 확충 등 예술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외 사례: 미국 예술교사교육 프로그램(Teacher Education Program)

“교사의 예술교과교육 역량 강화”

- 교사교육협력 프로그램: 뉴욕시에 소재한 교대 및 사범대와 연계한 예비교사 양성교육으로, 예술교육기법 및 체험 실습 기회 제공
- 교육자 워크숍: 예술적 접근을 위한 실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학교나 지역의 특수한 관심을 반영한 예술교육 개발

○ 교과-예술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술과 타 교과를 연계한 융합 교과를 포함하여 예술이 가진 교육적, 정서적 특성 체험 및 예술적 소양과 학습을 촉진하여, 공교육 내 체험중심의 예술교육 환경조성을 조성한다. 음악, 시각미술, 무용, 연극의 각 예술영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주제(unit)아래 다른 교과목들을 융합하여 일반학교 내 교과활동 연계 예술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사고과정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성의 계발을

3) 부록 3 참조.

도모한다. 또한 미적 체험을 통한 심미성 계발을 중시하는 예술교과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천적인 예술 능력을 배양한다.

국외 사례: 미국 아츠엣지 프로그램(ArtsEdge Program)

“타 교과와 융합으로 다양한 예술체험 실험”

-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 주관하는 예술통합프로그램
- 교육단체인 Thinkfinity, 국가교육기구, 주 교육청, 통신회사 협력
- 교과교육-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사고능력 향상 및 인성 계발 목적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예술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은 수용적 체험으로부터 표현적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과 경험을 통해 범교과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 연계될 수 있게 한다. 각 학교, 학년별 특색을 살려 예술매체를 통한 비 교과활동의 과제수행을 격려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성공적인 과제 수행은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다. 예술활동은 아이디어를 구상, 응용, 평가 및 비판하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으며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구 활용력, 집중력, 시공간 개념과 같은 추상적 지각력의 발달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예술교육 모델로 확장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안 밖에서 예술의 다매체적 수용경험과 창작의 표현 작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국외 사례: 영국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창의력 키우는 국가 수준의 문화예술교육”

- 창의성 학교(Schools of Creativity):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개혁학교(Change Schools): 문제가 있는 지역의 학교에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방법 개발 및 학습 환경 형성
- 탐구학교(Enquiry Schools):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을 새롭게 적용

○ 음악실 및 미술실 구축을 통한 환경 구비

학교는 양질의 예술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술교과의 활동 특성과 다양한 효율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예술공간을 마련한다. 예술교과 교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활동과 연주를 위한 공간, 연습이 가능한 공간,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전시와 감상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여러 유형과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제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는 학생·청소년 예술교육을 위한 예술 공간, 유흥시설, 폐교 등을 제공하며, 전시장과 공연장 등의 예술 공간을 확장하도록 한다. 2011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약 3400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 중 미활용 폐교는 약 460여개가 있다. 이러한 공간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예술 공간으로 제공된다면 예술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외 사례: 영국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

“소외계층을 위한 복합 공간”

- 원래 공장이었던 곳을 1,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예술공간으로 개조
- 서커스, 음악 페스티벌, 영화상영, 설치예술, 강연 등을 진행
- 전문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부터 실연까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소외계층 청소년의 재능 계발을 위해 지원

<표 4>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 (2011.4.1. 기준)

시도 교육청	폐교수 (A=B+C+D) 82년부터	매각 완료 (B)	활용현황									향후 활용계획 (미 활용폐교)				
			대 부(임 대)							자 체 활 용	계 (C)	매 각	대 부	자 체 활 용	보 존 관 리	계 (D)
			교육 시설	시 회 복 지 시설	문 화 시설	공 공 체 육 시설	소 득 증 대 시설	기 타	소 계							
합계	3,438	1,939	272	65	84	15	220	161	817	216	1,033	147	121	27	171	466
서울	1	1							-		-					-
부산	12	5	3						3		3	1	2	1		4
대구	27	12	2		4			1	7	7	14	1				1
인천	46	24	3				2	7	12	3	15	7				7
광주	14	6	4	2	1		1	-	8		8					-
대전	8	3	3						3	1	4	1				1
울산	21	8	3	1		1		1	6	6	12		1			1
경기	162	64	35	4	10	4	3	1	57	22	79	10	5	4		19
강원	416	127	43	8	14	4	81	79	229	18	247	3	36	2	1	42
충북	220	96	42	6	5	1	21	11	86	11	97	3	15	8	1	27
충남	259	182	9	4	7	1	4		25	18	43	25			9	34
전북	319	264	5	2	3		1		11	15	26	6			23	29
전남	751	492	20	5	10		14	2	51	32	83	41	9	2	12 4	176
경북	632	384	40	16			53	35	144	50	194	21	25	8		54
경남	517	267	44	15	29	3	38	23	152	33	185	28	23	1	13	65
제주	33	4	16	2	1	1	2	1	23		23		5	1		6

나. 교과외 예술교육활성화 실천 과제

○ ‘1인 1기’ 운동 실천

모든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밴드 등의 다양한 예술활동 중 최소 1개의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악기교육 및 예술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합주 및 합창 등 다양한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권을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의 심리적·문화환경적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 지원한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예술활

동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내재된 예술적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외 사례: 독일 기악 교육 프로그램

“모든 어린이에게 한 가지 악기”

- 독일 루르(Ruhr) 지방 초·중학교
- 정부와 기업, 음악학교와 초등학교, 시민단체가 협력
- 사교육과 공교육의 통합을 이루어 교육의 기회 확대
- 음악기초이론 교육위주의 수업에서 놀이와 악기연습이 조화를 이룬 실제악기 교육 병행
- 궁극적인 목적을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둔 거시적 안목의 인성교육

○ ‘1인 1동아리’ 운동 실천

모든 학생·청소년이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동안 최소 1개 이상의 예술동아리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선호도와 기호, 그리고 관심 분야를 반영한 다양한 동아리 콘텐츠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자치 역량 및 협동심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미술, 음악, 공연/영상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구상하고, 신체활동이 많은 협동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작품 완성 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1인 1예술동아리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심미적, 정서적, 전인적 성장을 함양하도록 한다.

국외 사례: 미국 하모니 프로젝트(Harmony Project):

“정서지원 음악프로그램”

- 미국 Los Angeles 주변 소외지역 학교에 속해 있는 정서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역 대학교, LA Philharmonic 오케스트라, 엑스포 센터, 해당 교육청의 ‘Beyond the Bell’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오케스트라, 개인레슨, 재즈밴드, 힙합앙상블, 학부모 워크샵, 현장학습, 지역 봉사활동

○ 예술동아리 활동의 콘텐츠 개발

예술동아리 활동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풍요로운 예술경험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술동아리 활동은 예술 교과 수업과는 차별화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음악활동의 경우에는, 뮤지

컬, 아카펠라 합창, 오케스트라, 난타/사물놀이 등의 타악기 활동, 다양한 보컬 밴드 활동 등, 미술활동의 경우에는, 사진, UCC 제작, 애니메이션, 만화, 컴퓨터 그래픽, 인형극 동아리 활동 등이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예술동아리 활동 결과들을 서로 발표하고 각자의 느낌 및 생각 등을 나누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등은 학생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의 동아리 콘테스트와 축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동아리 활동의 공유 및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심화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예술적 기능과 더불어 개인과 타인, 사회, 국가, 세계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인성문제(폭력, 중독,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 우울, 품행장애, 학습장애 등), 학생·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예술로 극복하고 승화할 수 있는 문제 해결중심 맞춤형 예술교육, 예술치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 생애 예술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여 성인이 되어도 정서적, 심미적, 전인적 예술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예술축제 정기화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출 할 수 있는 학교예술축제를 활성화 한다. 학교예술축제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이 경직된 곳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예술표현의 장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학생들에게 수동적이고 소외된 관객이 아닌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재미를 창출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모여 소통하고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강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예술 축제 연계 및 재능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학교 활용 등 청소년 예술 축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외 사례: 일본 전국 고등학교 종합문화제

“학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제 체험 프로그램”

- 1977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8월 초 개최하여, 일본 전역의 고교생이 참여
- 합창, 관현악, 밴드, 일본음악, 미술, 공예, 연극, 사진, 서예, 바둑, 방송, 향토예능 등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분야
- 학생들에게 예술활동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참여 의지 고취
- 예술활동을 통해 전국적, 국제적 규모의 학생 상호 교류와 친목 도모

○ 토요/방과후 예술교육 활성화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및 학년별 특색을 살려 예술매체를 통한 비 교과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고 교육 기부 사업을 통한 자원 활용 등 보다 조직적인 예술교육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외 사례: 독일 베를린 문화프로젝트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지원”

- 독일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
-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 베를린 시내 학교 50개교, 예술단체 30개, 사회단체 25개 협력
- ‘오감 자극 색깔 체험프로그램’, ‘아벤토이어 뮤지엄’, ‘신나는 즉흥연주’, ‘오페라와 연극의 밤’ 등 다양한 예술교육을 무료로 제공

○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실화

최근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폭넓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예술교육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학교현장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2000년 국악강사포제를 시작으로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정의 자격과 교육과정을 거친 전문 예술강사를 학교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내실화된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예술강사들이 청소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예술강사들을 위해 특화된 교육학적 지식과 방법론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풍부한 예술교육의 기회와 교육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술강사들이 충분한 현장감과 교육적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 예술교육에서의 예술강사들의 전문성과 교육의 정신은 학생들의 예술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 예술매체를 활용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 상담교사 지원 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자리매김 해왔으며, 특히 최근 학교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자살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상담 전문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제에 따른 특성화된 학교 상담모델 및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오인수, 2010). 또한 상담모델에 예술매체의 치료적 기능이 접목될 수 있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 및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악, 미술 그리고 무용·동작 등 다양한 예술적 매체를 활용한 상담은 자신의 개인적 문제와 관계 문제에 대한 시각 변화, 그리고 환경을 수용하고 감당하는 대응력 등 심리적인 힘과 자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부적응, 학업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예술 매체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치료·교육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이미자, 2004; 강정숙, 2005; 신정선, 2006).

예술매체를 활용한 상담을 통해 치료 및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한 언어 및 비언어적 매체를 접목한 상담 기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재교육할 수 있는 지원망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들의 기질과 소통 특성을 고려한 다매체 중심의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또래 관계 문제에서부터 중도학업탈락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지역 예술교육협의회 구축

○ 예술교육선도교육지원청 지정 운영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예술교육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교육선도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관할 지역의 예술교육 인프라 연계 및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도록 한다. 예술교육선도 교육지원청은 중앙관리 및 사업실행 기관으로서, 예술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업을 구상 및 기획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정책 사업의 행정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학교 예술인성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라. 지역사회 예술 자원 연계망 강화

○ 지역사회 예술 자원 연계 및 공유

학교의 벽을 넘어서 해당 지역 교육자원(대학, 예술인 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등 지역사회를 연계한 자생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반을 구축한다. 예술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의 벽을 낮추고 예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은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예술문화교육은 학생들이 문화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을 통한 공동협력, 공동체 의식은 예술인성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연결되며 일반인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예술 자원을 연계하고 공유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인성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 기업 교육기부 활성화

○ 기업의 기부 및 교육사업 확대

특정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재정적 자원은 필수 요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지역 기업의 기부와 교육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업 기부 문화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및 국가가 기업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공생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또한 문화소외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들에게 소중한 예술교육의 기회로 확장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나눔 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다.

○ 학교 메세나(Mecenat) 확대

21세기는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공동체 사회 시민으로서의 기업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맞물려 학교에서의 다양한 기업 기부 모델을 창출 하고 있다. 외국의 기업 메세나 관련 기구는 영국의 A&B(Arts & Business), 프랑스의 ADMICLA(Association pour le Developpement du Mecenat Industriel et Commercial), 미국의 BCA(Business Committeee for Arts) 등 24개국에 31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여 예술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한국의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메세나협회’를 발족하였다(문화예술위원회, 2010).

학교의 기업기부 활동은 초·중등 교육 현장에 기업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을 통한 기업기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으로써 기업의 기여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업이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교 및 예술계가 함께 자원을 공유하고 그 지원망을 확대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및 사회 계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술교육을 향유함에 있어 그 기회를 상실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다양한 예술교육 기부모델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토요 예술학교 프로그램 모델

- ▶ 초·중등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 및 예술 교육기부 모델 창출
- ▶(참여 기관) 삼익악기(악기 원가 제공), 교육청(학교선정 지원), 지역기업(악기 비용 및 운영비), 인실련(사업모델 확산), 교과부(사업 추진 지원)
- ▶(통기타 교실 운영)
 - (삼익악기) 학교에 통기타 원가 제공, 운영비 지원
 - (지역 기부 기업) 악기 구입 비용, 운영비 금전 기부

바. 가정(1가 1기)에서부터 예술교육 시작

예술인성교육은 예술의 심미적 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서 함양, 관계 형성 기술, 그리고 사회 적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인성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미적 삶의 추구가 진정한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름다움과 어울림, 조화와 균형이 인간의 전인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확고한 믿음이 모든 계층, 모든 분야에서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지역 사회, 시민 또는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 모두가 예술의 전인적 특성과 심리정서적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근래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지원이 양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나, 지속성과 체계성에 있어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안정적인 예술인성교육 전략과 함께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가정에서부터 1가 1기 운동을 시작으로 가족 간의 음악 또는 미술을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서 서로 협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부처별 예술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진정한 예술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면서 실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예술교육에는 지자체 뿐 만아니라 정부 부처가 각기 지원하는 특성화된 목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행하는 예술교육이 포함된다. 현재 다양한 정부 부처는 각각 주어진 사업 목적에 따라 <표 5>와 같이 다양한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표 5> 정부 부처의 예술인성교육 실천 사업

부처	교과부	문화부	여가부	법무부	노동부	복지부
목적	· 학교예술교육	· 지역 문화예술교육	· 가정의 건강	· 준법과 규칙준수를 통한 사회 안정	· 생산적 청년노동력	· 국민 건강 및 복지
예술관련사업	· 예술 교과 · 예술융합교육	· 지역문화예술 고양 예술가양성 및 예술활동지원	· 가족관계강화-1가1기	· 소년원/대안학교 예술교과교육	· 예술치유사업 통한 노동력증진 · 중도학업탈락예방 예술사업	· 장애아동 예술재활치료 · 사회복지 및 재활을 위한 예술교육사업
사업명	· 학교교육복지투자사업 · 예술융합교육사업 · 예술교육중점사업 · 예술교육선도학교사업 · 예술동아리사업 · 상담교사지원사업(예술상담) · 학교폭력예방 및 폭력관련 예술치료교육 프로그램	· 예술강사지원사업 · 청소년페스티벌 · 생활문화공동체사업 · 문화소외지역예술사업(예술창작지원사업) · 예술치유활성화지원사업	· WEE 센터 예술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모-아) 예술프로그램 · 청소년문화존 지원사업 ·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 청소년상담지원(예술치유) · 청소년심터 예술프로그램	· 교육교화사업(예술) · 소년원 예술교육사업 · 대안학교 예술교육지원사업 ·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 청소년 보호센터 예술프로그램	· 청년노동력증진사업 · 중도학업탈락예방사업	· 인터넷 중독예방 및 중독 예술치유 프로그램 · 장애학생 재활치료 서비스 · 저소득층 예술교육 ·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예술치유 · 폭력가해 및 피해 학생 예술 치유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교 현장의 국·영·수 교과 위주 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수립·추진해왔다. 이 방안은 교과활동에서 예술교육 강화,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시행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예술동아리 사업, 예술교육 선도학교 사업, 예술교육 중점 사업, 과학예술 융합교육 사업, 학교교육 복지 투자 사업 등 다양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교육은 이처럼 인성함양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수단이 되므로, 공교육 내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을 위한 중·장기적 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술교과 교육의 내실화 뿐 아니라 예술 융합형 프로그램, 예술동아리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교육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교과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역 교육자원(대학, 예술인 단체 등)을 규명하고 이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등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주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점과제를 두었다. 이 과제를 통해서 정책 대상을 학교, 취약계층 등의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예술행사, 공동체 문화를 개발하여 다양한 생활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예술치유 사업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예술이 공동체 내에서 관계 형성을 통해 보다 넓은 환경 인식과 문화적 소속감 및 동질성을 경험하게 하는 주요한 매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제도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농산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소외지역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문화적 접근성이 적은 학생들에게 예술적 소양은 물론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소양을 배양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라는 비전으로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역량강화’ 및 ‘기회균등’을 통해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보편적인 정책을 펴나가며, 가족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원·보호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 나아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가정들이 서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내 문화 예술 가족행사를 활성화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합창대회, 공연, 구역별 전시회, 벼룩시장 등 지역의 가장 작은 구성원인 가족 중심 행사들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예술활동을 통해 그들이 가족들간의 유대감, 지역적 소속감을 나누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수용하고 수용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문화 가정 예술 교육사업, 양육스트레스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모-아 관계형성 예술프로그램 등 가정에서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 법무부

법무부는 제도적 안정과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법과 규칙을 제시하고 모두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인성적 문제가 있는 대상들의 경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교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 특기, 능력 등의 적성을 고려하여 그릇된 심성을 순화함과 동시에 근로정신의 함양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특히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및 예술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교정교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잠재된 소질을 개발하여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 예술교육, 대안학교 예술교육 등 이들에게 적합한 예술교육 및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지원하여 이들의 내면적인 문제와 행동을 수정하고 보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음악, 미술, 표현예술, 드라마치료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억압된 분노, 불안, 우울, 피해의식 등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진로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과 일터를 연계하는 다양한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젝트와 중도학업 탈락한 기초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이 부족한 고졸 이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인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산업현장 견학, 봉사활동, 테마여행, 심리치료 등 다양하고 특화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예술활동은 자신의 욕구 규명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부적절한 소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 왕따 등을 극복하기 위해 특화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을 증진하고 중도학업 탈락을 예방할 수 있다. 중도학업탈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 강화와 긍정적 정서를 함양시켜주기 위해 특화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학교 적응력을 도와줌으로써 청년노동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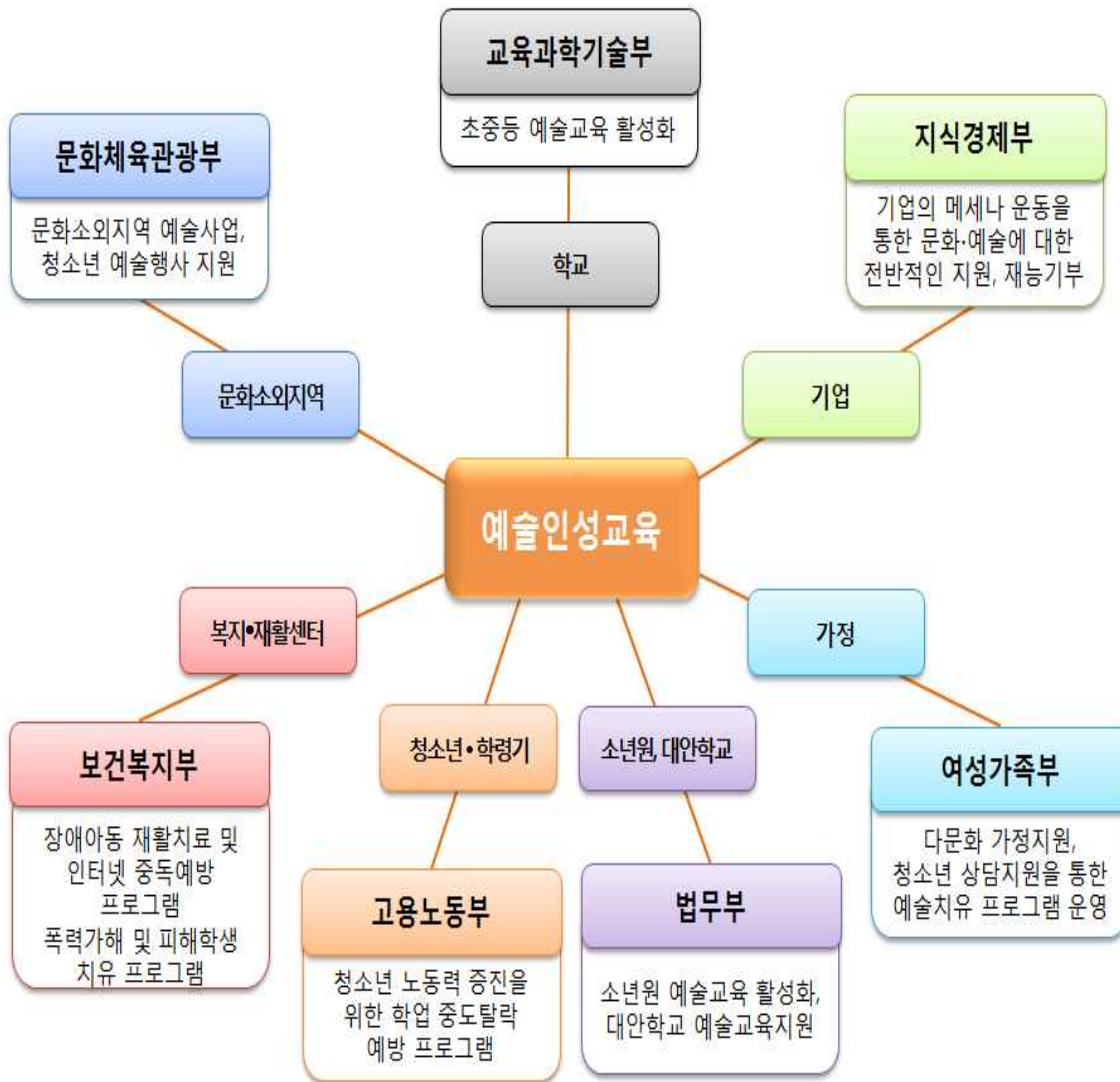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학생·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발달 검사 및 발달장애 조기개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해 36개 지자체에서 예술교육과 예술치료를 결합한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이에

다른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중독 학생 치료서비스, 학생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폭력가해 및 피해 학생 예술치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장애학생을 위한 재활치료 일환으로 예술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지만 더 나아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학생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특수 교육활동으로서 다양성과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예술가로 활동하는 장애인은 약 36명으로 장애학생들의 잠재적 역량과 가능성을 조기에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지자체기관 등 예술교육의 인프라와 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각 부처의 역할에 따라 여러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술교육 사업은 [그림 6]과 같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서 범 국가적인 예술교육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림 6] 정부 부처의 예술인성교육 실천 방안

V. 예술인성교육의 로드맵 구축 및 운영모델

1. 총체적 예술인성교육 모델

지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와 국가가 예술인성교육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수평적·수직적으로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여 그 영역과 차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예술인성교육의 총체적 실천 모델

인성요소	개인/관계/사회문화적 인성교육
가정	· 가족 예술 장기자랑(1가 1기)
학교	· 교과내: 예술교과의 정상적 운영 및 내실화, 예술중점학교 · 교과외: 방과후학교, 예술동아리, 학생오케스트라
지역사회	· 지역 예술가, 예술 단체와 연계한 예술 동아리 축제 · 토요문화예술학교 · 초등학교 돌봄교실 · 청소년 예술제 · 다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지역예술축제 · 통합예술치유프로그램 · 교육봉사 및 지도(지역 대학 자원)
기업	· 교육기부(교육사업) · 재능기부(문화예술사업) · 자원기부(악기기금)
시민/민간 단체	· 학교방문 재능기부(학술/예술전문단체) · 학부모 재능기부(학부모위원회)
정부부처	· 교과부: 예술교육지원 사업 · 문화부: 문화소외지역 사업 · 여가부: 다문화가정 예술교육사업 · 법무부: 소년원/대안학교 예술교육사업 · 노동부: 청년노동력증진-중도학업탈락예방 사업 · 복지부: 장애재활 예술치료사업

2. 예술인성교육 로드맵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은 장기적 전략에 따라 수립된 계획 하에 수행되어야만 실천적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다. 예술인성교육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방안을 ‘예술인성교육의 로드맵([그림 7])’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예술인성교육은 예술의 심미적 체험의 확대, 개인성과 예술성과의 만남, 예술교육 내에서의 대인적·사회적·공동체적 성격의 강조라는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었다. 예술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한계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기회의 부족이라는 현재 예술교육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생들이 공감과 표현, 소통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인성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예술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기존의 예술교육의 한계가 보완된 새로운 인성교육의 비전의 배경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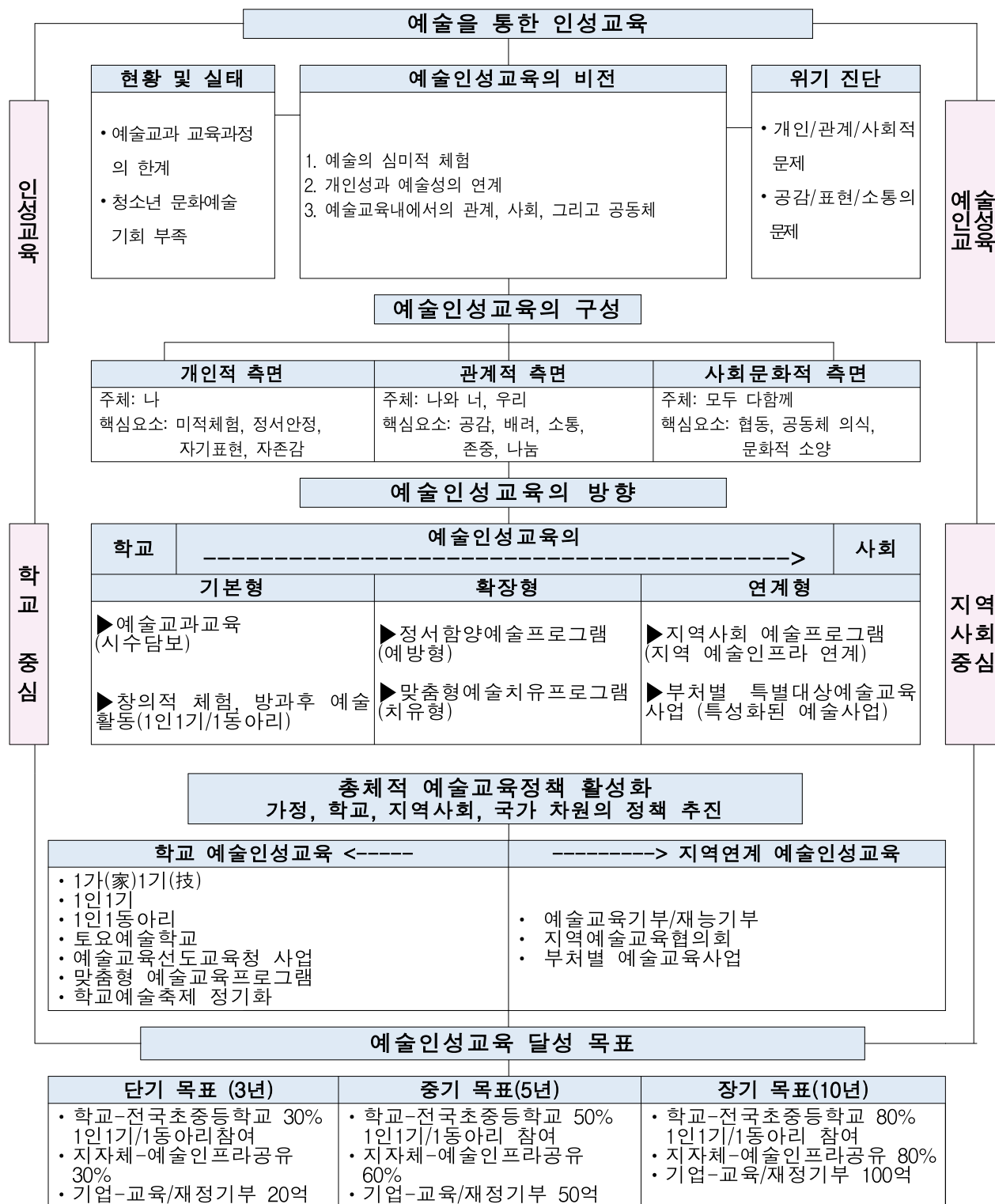
예술의 심미적 체험, 개인성과 예술성의 만남,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예술체험을 위한 예술인성교육의 구성은 세 가지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세 가지 측면은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을 뜻한다.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 주체는 ‘나’이며, 교육의 핵심요소는 개인의 미적 체험, 정서적 안정, 자기표현의 확대, 자존감 향상이다. 관계적 측면의 주체는 ‘나와 너, 우리’이며, 교육의 핵심요소는 공감과 배려, 소통과 존중, 그리고 나눔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주체는 ‘모두 다함께’이며, 여기서 교육은 협동 및 공동체 의식의 배양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인성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점차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형태로 전개된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예술교육은 ‘기본형’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예술교과교육 시간을 통해 예술인성교육이 시행되거나, 창의적 체험 또는 방과후 예술활동에서 그 시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학교중심의 기본형이 뿌리를 내리면 이제, 확장된 형태(확장형)의 예술인성교육이 시행될 수 있다. 이는 ‘예방형 예술인성교육’과 ‘치유형 예술인성교육’으

로 구체화된다. 예방형은 일반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성적 문제가 심각한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정을 목적으로 맞춤형식의 치유형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중심으로 더 확장된 형태의 교육은 ‘연계형’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예술프로그램’ 그리고 ‘부처별 특성화대상예술교육사업’의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성의 변화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개입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그 효과를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총체적 예술인성교육의 활성화는 ‘1가(家) 1기(技)’, ‘1인 1기’, ‘토요예술학교’, ‘예술교육 선도교육청 사업’, ‘맞춤형 예술교육프로그램’, ‘학교예술축제 정기화’ 등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외화 되며,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예술교육 기부 및 재능기부’, ‘지역예술교육협의회 사업’, ‘부처별 예술교육사업’ 등으로 현실화된다.

이에 따른 예술인성교육의 로드맵은 [그림 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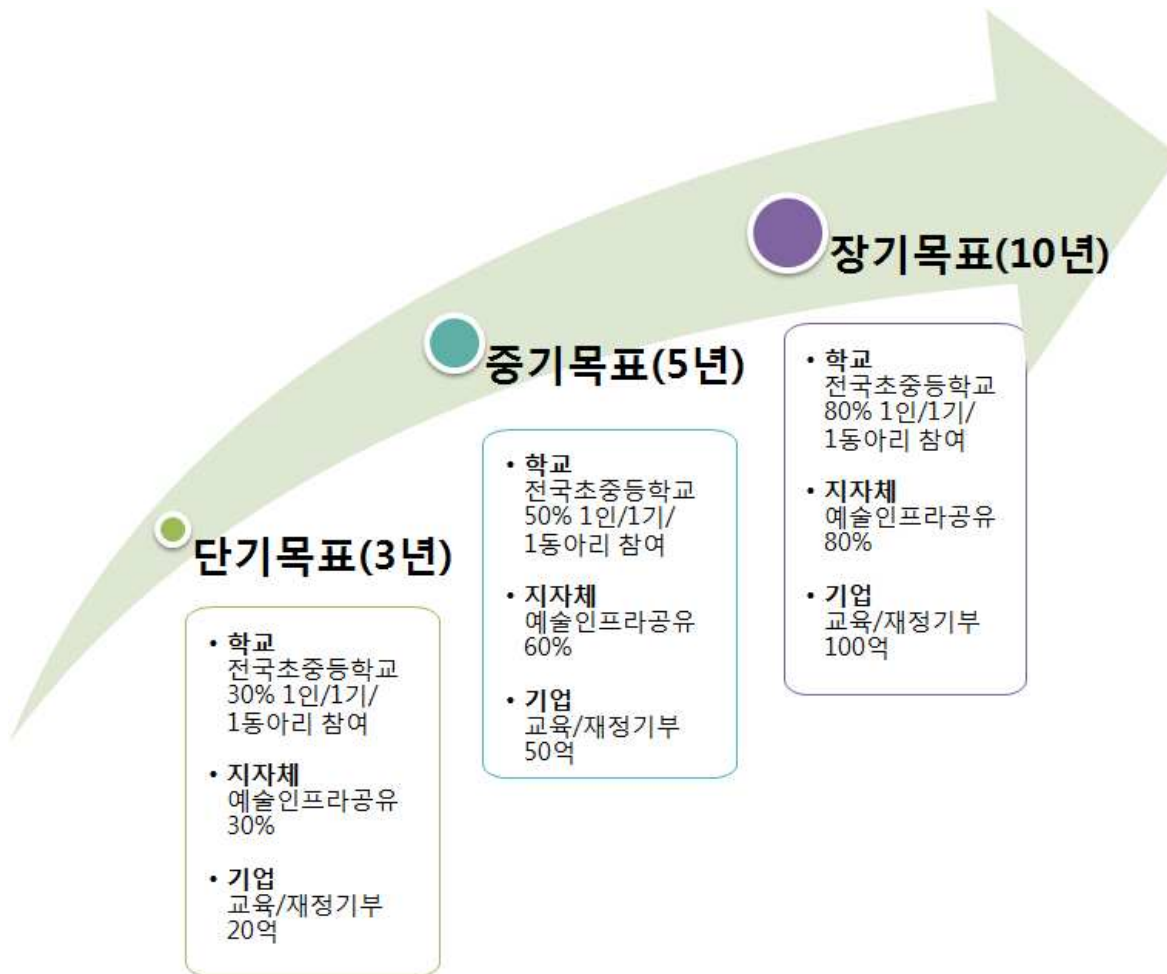


3. 예술인성교육 성과지표

위에 제시한 로드맵은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인 지표에 따라 추진될 수 있다. 각 지표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업이 어떻게 예술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표 7>과 같은 목표치로 책정해볼 수 있다. 예술인성교육은 초·중·고 예술교육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실현될 수 있다. 2011년 4월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초등학교가 5,882교, 중학교가 3,153교, 고등학교가 2,282개교로 모두 11,317개교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단기적으로는 3년 안에 전체 학교의 30%에 해당하는 약 3000개교에서 ‘1인 1기’ 및 ‘1예술 동아리 참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예술 인프라를, 그리고 기업들이 최소 20억에 상응하는 규모의 교육기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5년으로 설정하여 전체 초·중·고교 50%에 해당하는 약 5000개교에서 1인1기와 1예술동아리 참여, 이를 위한 지역 인프라 연계, 기업의 교육기부 및 재능기부 50억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다. 기업이 보유한 문화예술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물적 기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 목표로는 10년 이내에 초·중·고등학교의 80%에 해당하는 약 8500개교에서 1인1악기와 1예술동아리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기업이 100억에 준하는 교육기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8] 예술인성교육 달성 목표

<표 7> 예술인성교육 로드맵의 성과 지표

구성원	사업/ 정책명	단기 (3년)	중기 (5년)	장기 (10년)	기대 효과
가정	1가(家) 1기(技)	• 가족단위 문화여가 활동 월별 평균시간	• 가족단위 캠프 연간 참여횟수	• 가족단위 연간 장기자랑 참여횟수	개 인 적 인 성 요 소 강화 • 가족 간 친밀감 증 진
학교	1인1기	• 합주/합창단 운영 학교 전국 3000개교	• 합주/합창단 운영 학교 전국 5000개교	• 합주/합창단 운영 학교 전국 8000개교	관 계 적 인 성 요 소 강화 • 학 교 적 응 력 증 가 • 중 도 학 업 탈 락 감 소
	예술 동아리	• 1인1동아리 운영학교 30% (전국 초중등 학교 중 3천개교)	• 1인1동아리 운영학교 60% (전국 초중등 학교 중 5천개교)	• 1인1동아리 운영학교 80% (전국 초중등 학교 중 8천개교)	
	예술 페스티벌	• 예술페스티벌 참여학교수 30% (전국 초중등 학교 중 3천개교)	• 예술페스티벌 참여학교수 60% (전국 초중등 학교 중 5천개교)	• 예술페스티벌 참여학교수 80% (전국 초중등 학교 중 8천개교)	
지자체	모아예술 프로그램	• 학교-대학-지역-예 술단체 예술교육협의 회 구축: 30% (50개 교육지원청)	• 대 학-지 역-예 술 단 체 예술교육협의회 구축: 60% (100개 교육지원청)	• 대 학-지 역-예 술 단 체 예술교육협의회 구축: 80% (150개 교육지원청)	사 회 적 인 성 요 소 강화 • 사 회 통 합 및 공 동체 의식 함양
	다문화 예술프로 그램	• 구 단위 기 관(구청) 예술프로그램 지원: 전국 30% 시행	• 구 단위 기 관(구청) 예술프로그램 지원: 전국 50% 시행	• 구 단위 기 관(구청) 예술프로그램 지원: 전국 80% 시행	
기업	교육/ 재정기부	• 예술교육기부사업 : 20억 (메세나사업)	• 예술교육기부사업: 50억(메세나)	• 예 술 교 육 기 부 사 업: 100억(메세나)	문 화 적 인 성 요 소 강화 • 문 화 소 외 지 역 대 상 기 회 제 공
	재정기부	• 예술문화공간 : 연 12회 지원	• 예술문화공간 : 연 24회 지원	• 예술문화공간 : 연 50회 지원	

III. 결론

1. 예술인성교육의 역할과 기여
2. 예술인성교육의 활용영역 확장

VI. 결론

1. 예술인성교육의 역할과 기여

○ 정서발달과 정서순화 교육의 기초와 중심 역할

예술교육의 강조와 다양화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정서순화에 기본적이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와 가정 및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생 인성문제에 학생, 부모, 교사, 일반인 모두가 정서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으며 예술교육의 정서발달과 순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선진 국가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성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실시해오며 앞으로도 융합교육에서 예술을 포함함으로써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교육이 중심이 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 밝고 건전한 학교문화 창조

예술인성교육은 개인의 정서적, 인성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정서표현, 정서순화 및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는 밑거름이 된다. 예술을 통한 건강한 인성교육은 개인적으로 자기표현, 자주성, 정체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타인의 의사와 욕구를 이해하는 공감, 배려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집단생활에서 화합의 능력과 미덕을 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성교육은 밝고 건전한 학교 문화를 창조하며, 나아가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과 같은 아동,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인성문제 위기증후 극복 제시

예술교육은 인성발달에 문제를 안고 있거나 심각한 위기증후를 보이는 아동, 청소년이 예술체험을 통해 정서적 해방감과 자존감, 공동체 활동을 체험하여 정서순화와 건강한 인격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성교육은 아동, 청소년 정서, 행동 문제를 예술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치유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하

여 극복할 수 있다.

○ 건강한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육성

예술인성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 및 감성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교육 내에서 개인차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인적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 예술인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특성을 이해하고 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 심미적 삶의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 문화국가 수립

예술인성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의 성장이 부의 축적이나 권력의 소유에 있지 않고, 자신 내부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차원 높은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다. 예술인성교육은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예술교육 철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여 선진문화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

2. 예술인성교육의 활용영역 확장

○ 예술인성교육을 전 생애영역으로 확대

예술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의 벽을 낮추고 예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다매체적 수용경험과 창작을 통한 표현 작업 등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인성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술이 갖는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성교육을 전 생애로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정서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 예술인성교육을 위기에방과 치유적 기능으로 연계

예술인성교육을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전 생애 교육으로 확장함으로써 현대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나아가 잠재된 심리문제들이 병리적 상황들로 드러난 사회 구성원에게 치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계성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여기에 정부 각부처간의 유연하고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 예술인성교육을 세계문화교류로 확대

예술인성교육은 한 국가만의 교육을 넘어 전 세계에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비언어적, 범세계적 예술의 특성으로 아동, 청소년 예술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예술교육이 인성교육으로 확장되며 이러한 영향이 전 세계의 예술교육으로 전파되는 사례를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예술을 통한 인성교육은 세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세계 문화교류로 확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부 록

1.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2.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3. 예술인성교육 비전 시안

(부록 1)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1) 학생오케스트라

□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근거

- 법적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년)
- 교과부-문화부 학교 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 2010년 유네스코 '서울선언'의 실천
-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의 한국적 적용

※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목적

- 문화예술 중심의 창의 교육 공교육 내 실현
수동적 지식 전달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공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대폭 보강. 예술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개방성을 확장시켜 창의적이고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인성 함양 및 사회성 발달
비언어적 표현활동인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함께 어울려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향상
문화소외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교육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우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임

□ 추진 체계

- (교과부) 교사연수·컨설팅 등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예술전문가
로 구성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 운영
 - '12년도 학교당 사업비(8천만원) 지원('11년도 1억원까지 지원)
- (교육지원청) 지역의 예술단체·음대, 예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예술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2011-2012) >

[illegible]

2) 중학교 예술동아리 사업

□ 추진 배경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에 학교 예술동아리 운영 포함(‘12.02)
-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인성·적성 개발, 사회성 함양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필요

□ 기본 방향

- (대상) 학교폭력 위험지역, 예술활동이 저조한 중학교
 -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예술교육선도학교, 예술중점학교,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제외
- (규모) 1교 1동아리 지원 원칙(총 500개 동아리)
- (선정) 교육청별 물량 배정 ⇒ 단위학교 동아리 자율 구성
 - *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 20개 제외
- (구성 원칙)

- ① **학생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학생회 등이 중심이 되어 **가장 희망하는 동아리를 학생 자율적으로 선정**
- ② **신체활동이 많은 협동활동** 중심의 동아리 권장
- ③ **토요일 등 주말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동아리 권장
- ④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활동**하는 동아리 권장

- (운영) 학생자율로 회원모집·운영
 - 학생자치역량·협동심 향상을 위해 운영학교별 「학생예술동아리규칙」 자체제정·운영
- (분야) 미술·음악·공연/영상 분야
 - 정형적인 동아리 외에 학생회가 주관하는 예술관련 단기 행사 (예:UCC 공모전)도 동아리의 한 형태로 지원
 - 신체활동이 많은 협동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작품 완성 과정에서 협동심 배양
- (지원)
 - 교과부 : 동아리당 500만원 내외(장비구입, 강사료 등 활용), 홈페이지 운영, 전국 동아리 예술축제 등 지원
 - 교육지원청 : 현장 컨설팅, 특색 있는 운영, 홍보, 지역소재 예술단체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 등을 적극 활용
- (강사)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보·지원(지역예술교육협의회 활용)

3) 예술교육선도학교

□ 추진 목적

- 공교육 내 예술교육 기회 확산을 통한 예술적 잠재력 실현
- 예술수업 모델 개발·보급 및 예술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일반학교내 교과활동 연계 예술교육 강화
-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식 중심 교육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 확장

□ 예술교육 선도학교 사업목표

- 창의경영학교 교육과정혁신형 모델로써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생맞춤형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예술교과의 교과별 수업 및 교육과정 개선 선도
- 공교육 내 예술교육 기회 확산을 통한 예술적 잠재력 실현
- 예술수업 모델 개발·보급 및 예술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일반학교 내 교과활동 연계 예술교육 강화
- 예술교과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수 증대를 통해 일반학교 내 예술교과 수업을 개선하고 체험중심 활동을 통한 상호공감대 향상 및 창의·인성 역량 강화

□ 대상 학교 : 71교

- '11년 예술교육모델학교 21교
- '12년 예술교육 선도중학교 신규 50교 선정

□ 재정 지원

- (1교당 평균 지원액) 20백만원/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재정지원 기간) 지정 연도로부터 3년간

□ 핵심 과제

-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및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
- 예술수업 모델 개발 및 예술교육 환경 조성
 - 모든 학년의 예술교과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술 수업 모델 적용
 - 국어 등 일반교과에도 해당 교과 특성과 부합하는 예술수업 기법 적극 활용
- 타 교과와 예술교과의 교과융합
- 내용과 주제에 따른 예술교육의 융합 모델 개발

< 예술교육선도학교 운영 학교 (2011-2012) >

시·도	학교수	선정 학교	
		1차(예술교육모델 학교)	2차(예술교육 선도중학교)
서울	3	중부 창덕여중	성북 신일중, 중부 배화여중
부산	1	동래 연천초	.
대구	2	.	남부 죽전중, 남부 월암중
인천	2	동부 연화초	서부 방축중
광주	2	동부 전남여상고	서부 풍암중
대전	3	동부 세천초	동부 대전가오중, 서부 대전느리울중
울산	2	강북 달천중	강남 구영중
경기	8	고양 화중초, 성남 성남여중	평택 안일중, 화성오산 화도중, 성남 분당중, 부천 부천여월중, 동두천양주 남문중, 용인 백암중
강원	1	.	원주 상지여중
충북	8	괴산증평 칠성초	제천 청풍중, 청주 청주여중, 음성 음성여중, 청주 세광중, 보은 보은여중, 청주 율량중, 청원 각리중
충남	9	천안 천안남산초, 태안 소원초	서산 인지중, 태안 태안여중, 금산 진산중, 청양 장평중, 연기 금호중, 예산 고덕중, 논산계룡 연무여중
전북	4	익산 성북초, 전주 전주아중초	완도 전주예술중, 군산 군산대성중
전남	7	여수 시전초, 진도 석교초	여수 화양중, 여수 무선중, 영암 영암중, 순천 순천신흥중, 순천 순천승주중
경북	3	상주 화령초, 성주 명인중	구미 구미중
경남	13	고성 고성대흥초, 창원 삼정자초 합양 위성초	창원 동진여중, 창원 도계중, 창원 반송여중, 창원 구남중, 합천 아로중, 통영 욕지중, 창원 팔룡중, 창원 창원여중, 사천 사천중, 통영 사랑중
제주	3	서귀포 남원초	제주 한라중, 제주 제주여중
계	71	21(교)	50(교)

4) 학교폭력 근절 예술교육 지원사업

가. 정상급예술가의 '찾아가는 토요 마스터클래스'

□ 추진 배경

- 학교폭력근절 대책과 함께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의 질적·양적 보완 필요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올바른 가족문화 정착이 필요

□ 추진 방향

- 학생·학부모들이 선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 예술가를 명예교사로 위촉, 학교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인성 함양 및 문화적 욕구 해소와 예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5일 수업제와 연계,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족 여가문화 제공

□ 추진 방안

- (대상) 예술교육선도학교 학생 및 학부모
- (명예교사) 교육기부 의사를 가진 해당분야 저명 예술가 위촉
 - (분야) 음악, 국악, 미술, 무용, 연극, 영상, 사진, 건축, 오페라, 뮤지컬, 애니/만화, 마임, 디자인, 대중예술 등
 - (인원) 국내정상급 예술가 100인
- (프로그램)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순 강의형태가 아닌 '해설이 있는 미니콘서트', '예술작품 감상 및 체험', '예술가와의 대화시간' 등 상호 소통을 통해 예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일정/장소) 토요일(2~3시간) / 예술교육선도학교 또는 인근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유적지, 작가 작업장) 등

< 학생·학부모를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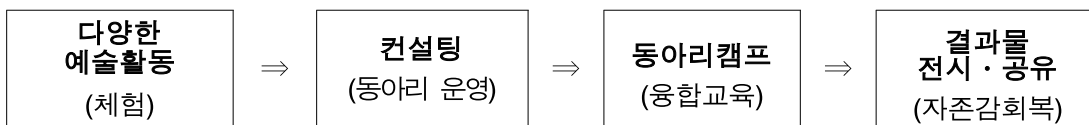
분 야	제 목	명 예 교 사	
		성 명	소 속
음 악	정트리오의 음악과 어머니	정명화	첼리스트
	김대진의 음악이야기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현악의 선율, 감성을 깨우다!	피호영	성신여대 교수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김학민	경희대 교수(오페라의 유령 연출자)
	합창의 세계	홍준철	‘음악이 있는 마을’ 지휘자
	세계의 음악축제	인재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
	세계의 악기이야기	우광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 술	영화 속 신기한 수학이야기 과학이 숨어있는 영화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재미있게 간추린 쓱쓱 서양미술사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꿈꾸는 도자기 이야기	이항렬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사진	꿈과 사진이야기	이철	사진작가
	황홀한 홀로그래피의 세계	이주용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통예 술 (국악)	이자람과 함께하는 우리소리	이자람	국악(판소리)
	김덕수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양악기와 만난 해금이야기	강은일	해금연주가
무 용	생각을 바꾸는 춤- 현대무용의 이해	전미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세계의 무용축제	장광열	무용평론가
	이야기가 있는 발레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대중예 술 예술일 반	힙합 간지남과 함께	타이거JK	가수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남경주	뮤지컬배우
	재미있는 마임의 세계	유진규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K-POP의 세계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공연장 들여다보기	정동혁	예술의전당 사업본부장
건 축	우리나라 전통가옥 이야기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건축이야기	조성용	광운대 교수(선유도공원 설계자)

나. 예술동아리 특화 모델 개발

□ 추진 배경

- 동아리 활동은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로 학교 내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됨
- 특히 동아리 활동에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따를 경우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인성개발, 진로 및 적성 탐색, 사회성 함양, 학교 축제 활성화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학교 폭력문제'의 대책방안으로 추진 필요

□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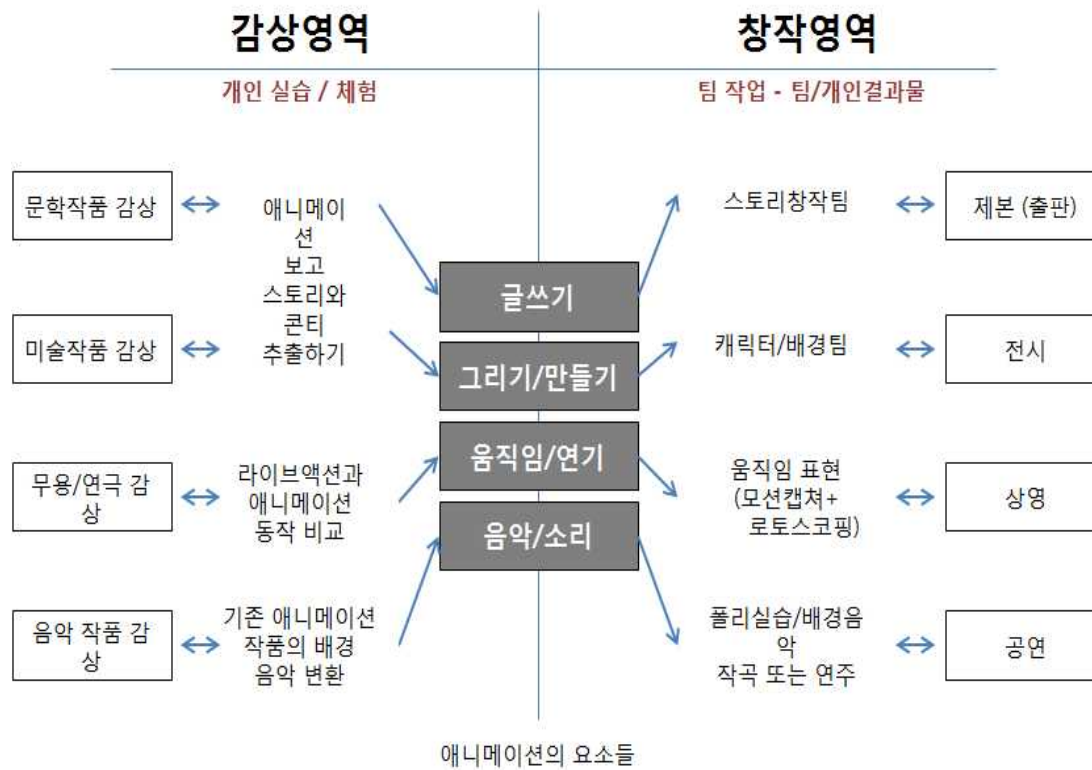
-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쉽게 접근하고 즐기면서 협업을 기반으로 동료와의 유대감을 높이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유도
- 예술동아리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해당분야 정상급 예술가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예술적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도
- 예술동아리 지도교사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동아리 모델 개발

□ 예술동아리캠프

- (프로그램) 개개인의 개성을 발현하는 창의성 교육과 팀의 조화를 중시하는 인성교육 병행
- (현장학습) 캠프 인근의 미술관 및 공연장, 도예공방,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 등을 탐방, 실제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 (결과 공유) 동아리캠프 기간동안 학생들이 제작한 결과물(도자기, 사진,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시회 개최

예술가 마스터클래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발굴해 창의성 함양교육
현장체험	예술현장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융합프로그램	캠프에 참여한 분야(도예, 애니, 사진, 디자인)간 특성을 이용해 예술적 상상과 발상 및 표현의 과정을 결합

< 애니메이션의 융합예술교육모형 예 >



(부록 2)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1)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사업(2011년도)

1. 서울 한서초등학교(교장: 백남신)

“서로 배려하고 마음 헤아려주는 오케스트라 활동, 건강한 또래관계 학습효과“

- 합주를 통해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협동하여 하나의 곡을 완성하며 다양한 소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을 경험함. 이를 토대로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필요와 의견을 또래에게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게 됨
-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하고, 또래관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특히 오케스트라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및 책임감 등이 향상된 모습을 보임

2. 부산 두충중학교(교장: 신귀원)

“음악적 소질 계발로 이제 왕따 아닌 우리 학교 스타“

-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등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되어 왕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줌. 악기를 배우고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고, 합주 활동을 통해 자기를 조절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움
- 교육복지우선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많고 음악적 기초지식과 재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었음.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할 뿐 아니라, 연주 활동을 통해 집중력이 높아지고 인내심이 강화되는 등 학생들의 변화가 학습적인 역량으로도 나타남

3. 광주 수피아여중(교장 : 박정권)

“전교생 앞에서 연주하는 경험으로 학교생활도 자신 있게 변화“

- 인성과 적성이 고려된 학생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음악을 꾸준히 접하는 경험을 하게 됨. 음악활동을 통한 인성적 접근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음
- 악기를 배우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할 뿐 아니라, 상호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며 적극적인 교우관계로 변화함

4. 충남 가사초등학교(교장: 우종윤)

“소그룹활동·멘토제 통해 공격적 행동 눈에 띄게 줄어“

- 소그룹 음악활동, 선후배 간의 멘토 제도를 통해 규칙지키기, 자신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기

2) 예술동아리 활성화 - 토요 만화·애니메이션·영화·디자인 아카데미

□ 참여 단체 현황

단체명	한국만화가협회
실천 과제명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예술동아리 활동 활성화
협력단체 /기관명	한국애니메이션 예술인협회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 실천 운동 전개 계획

1. 인성교육을 위한 주요 목표

-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활용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를 높이고 문화적
감성·협동심 함양
-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활동을 제공

2. 주요 사업 내용

- 운영 시기 : ' 12. 4.28 ~ ' 12. 12월 (토요일, 방학)
- 운영 방법
 -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협회의 강사(자원봉사) 시도교육청(거점학교 중심)을 방문하
여 강의
 - 예술교육선도학교를 거점학교로 하여 당해 학교 학생 및 인근 학교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급 구성 및 장소 제공 등 지원

3. 사업 추진 방법

관계자 협의회 (‘12.4월초)	만화 운영 (‘12.4.28)	애니메이션 운영 (‘12.5.12)	영화 운영 (‘12.5.19)	MOU 체결 (‘11. 5월)
교과부/협회/기관/ 시도교육청	매월 매주(토) 16개시도	매월 2주(토) 16개시도	매월 3주(토) 서울,인천,경기	교과부 협회/기관

4. 기대효과

-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대응, 토요일을 즐겁고 재미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날로 조성·
정착

3) 지역사회 연계 교과통합 프로젝트

□ 참여 단체 현황

단체명	장곡중학교
실천 과제명	‘흙 속에 담긴 낯선 기억을 찾아서’
협력단체 기관명	서해문화재연구소

□ 실천 운동 전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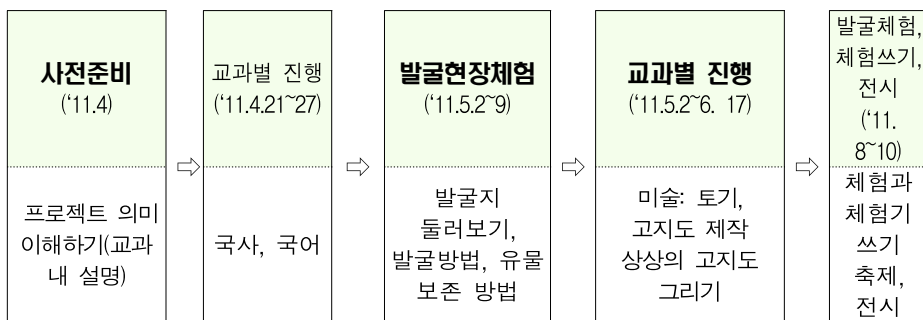
1. 인성교육을 위한 주요 목표

- 교과 지식에 치우친 교육과정의 균형을 도모하여 교과간 통합, 학교 밖 세상과 학교 안의 통합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바른 성장 신장
-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인식 통한 개인 삶의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 함양

2. 주요 사업 내용

- 운영 시기와 대상 : '11. 5 ~ '11. 10월, 중학교 3년 10개반 300명
- 운영 방법
 -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미술, 사회, 국사, 국어, 기술, 가정)
 - 외부체험 기관 연계; 고고학 체험교실 문화유산 교육
 - 문화유산 발굴유적 답사 발굴현장체험- 실내작업(토기제작, 고지도 염색, 문양그리기)
 - 프로젝트 체험기 작성: 보고서, 소설, 인터뷰, 포크폴리오, UCC 형식- 전시 및 교내시상

3. 사업 추진 방법



4. 기대효과

- 학생의 실제적, 종합적 사고능력, 협동심, 자존감, 문화의식 함양, 사회의 교육자원 활용(구비문학연구자 고고학자 등)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실천 과제명	교육복지우선지역의 예술교육 활성화
-----------	--------------------

☐ 실천 운동 전개 계획

1. 인성교육을 위한 주요 목표

- 대학-지자체-가정 간의 예술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 조기 예술인성교육 실시 및 예술체험의 기회 제공
-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적 기술 조기 습득

2. 주요 사업 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예술정서프로그램 실행
-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맞춤형 예술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3. 사업 추진 방법

- 예술교육치료연구소: 저소득층 학생 대상 예술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파견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좋은학교운영 사업
- 꿈자울음악교육연구소: 예술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기대효과

- 지자체, 대학 및 민간 연구소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안착
- 조기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안착

5-1) 교육기부사업(MOU 체결)

실천 과제명	민·관기업 협력 예술교육 활성화 교육기부 - 방과후 예술학교 '통기타 교실 지원'
-----------	--

□ 실천 운동 전개 계획

1. 인성교육을 위한 주요 목표

- 초·중등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 및 예술 교육기부 모델 창출
- 1인1악기 습득으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인성 함양 도모

2. 주요 사업 내용

- 충북 음성군 관내 10교*에 통기타 지원(200대)
- 능산초, 무극초, 부윤초, 삼성초, 소이초, 청룡초, 무극중, 삼성중, 한일중, 음성고 (초6, 중3, 고1)

능산초등학교, 무극초등학교, 부윤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소이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무극중학교, 삼성중학교, 한일중학교, 음성고등학교

- 전국 고등학교 10교*에 학생밴드** 지원(5인조 밴드 풀세트)

* 서울(서울북공업고), 부산(부일외고), 광주(광주전자공고), 대전(가오고), 강원(석정여고), 충북(오송고), 충남(강경고), 전북(장수고), 경남(웅상고), 제주(한림공고)

** Electric Guiter(2대), Bass Guiter(1대), Synthisizer(1대), Drum(1대), 신디사이저 스탠드, 드럼 스틱, 케이블(5인조 밴드 구성)

3. 사업 추진

- (주) 삼익악기 : 악기, 운영비, 연주회 등 지원

- ① 악기 : 교당 통기타 20개 총 200대 기증, 운영비 150만원(연간)
- ② 방과후 예술학교 발표회 개최 : 진행비·홍보물, 대관 등

-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밴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전국 중고등 학교 방문 프로그램(드럼서클) 교육 및 시연

5-2) 교육기부사업

실천 과제명	민·관기업 협력 예술교육 활성화 교육기부 - 교육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	---

□ 실천 운동 전개 계획

1. 목적

-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공생 발전 및 협력 릴레이 예술 교육기부
- 악기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인성 함양 도모

2. 주요 사업 내용

- 충청남도 및 강원도 관내 학교 10~30교

3. 사업 추진

- (주)더존비즈온(더존IT그룹)

- 기부 내용 : 디지털 키보드 100대, 음악교육 소프트웨어, 음악교육 서적 등
- 기부 대상 : 충청남도·강원도 관내 학교 10~20교

4. 기대효과

-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공생 발전 및 1인1악기 예술 교육기부 모델 창출
- 예술의 집단역동 체험을 통한 학교내 교우관계 개선 및 적응력 강화

(부록 3)

예술인성교육 비전 시안

- ◆ 모든 학생들의 감성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예술교과 활성화 및 효과적 운영으로 예술체험 기회의 확대

○ 방과후활동, 창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예술활동 제공

- 예술교과의 심화 및 학교밖 문화예술 체험 등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예술활동 선택 기회의 확대

예시

- ▶ 음악 :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밴드, 아카펠라, 송라이팅 등
- ▶ 미술 :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도예, 사진, 디자인, 그래피티 등

○ 1인(人) 1기(技) 습득

-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동안 한 개 이상의 예술활동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밴드, 영역별 미술동아리 등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

○ 예술동아리 활동 통한 협동심·사회성·정서순화·소통능력 함양

-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 협동심, 공감, 소통의 기회를 높이는 전시회, 발표회 기회 확대

※ '12년 전국 678개 중학생 예술동아리 지원

○ 초·중·고 예술활동 포트폴리오 작성

- 초·중·고에서 작업한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제작 혹은 작성) 및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

○ 교육기부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렉처콘서트,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 미술공모, 통합적 예술 공연/전시, 미술바자회, 나눔 릴레이 등 기회 제공

2 타교과와 예술교과의 융합을 통하여 감수성, 창의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교과수업 연계 융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예술과 타 교과를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델 학교 선정 및 지원

※ ‘12년 예술교육 선도학교(71교)를 선정하여 융합프로그램 150개 보급(’ 12.7)

사례

【 융합프로그램】 (경기) 성남중학교

- 음악적 체험을 통하여 나의 예술적 의욕 찾기(과학+음악교과 융합)
- 창조적 사고를 통한 나의 독창성 찾기(국어+음악교과 융합)
- 탐구적 사고를 통한 나의 문제 해결 능력 찾기(도덕+음악교과 융합)
- 동요를 활용한 중국어 기본표현 익히기, 개곡, 개사하기(중국어+음악교과 융합)

○ 체육·예술이 어우러진 학교 축제 개최

- 개교기념일, 봄·가을 학교 축제 등에 다양한 종목의 운동 경기와 공연·전시가 어우러진 학교 축제 개최

○ 중장기적으로 예술동아리 활동시간의 안정적 확보

- 중학교 스포츠클럽과 같이 예술클럽 활동시간을 증가시켜 보다 확장된 예술체험 제공

③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하는 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족이 참여하는 학교·지역사회 축제 문화를 만들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벽을 넘어선 예술교육의 장 확대

예시

【 학교 밖 예술의 場】

- ▶ 공연장(백스테이지투어), 박물관(토요예술), 미술관(전시관람), 과학관(예술과학융합체험, 문화예술회관(공간대여), 작가공방(견학), 대학 문화공간(교육봉사), 지역사회 센터 등

○ 1가(家)1기(技) 예술활동 문화 조성

- 가족이 함께 노래, 악기, 그림, 조각, 영화, 사진, 춤 등의 예술을 공유하면서 친밀감, 소통의 기회를 통해 가족 간 화합 도모

○ 예술 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예술교육 DB 구축을 통한 교(강)사 인력풀 제공 및 교육시스템 구축

○ 학교 메세나(가칭) 확대

- 기업, 학교, 예술계가 함께 참여하는 예술교육 자원 공유 및 지원망 확대

【방과후 토요 예술학교 프로그램 모델】

- ▶ 초·중등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 및 예술 교육 기부 모델 창출
- ▶ (참여 기관) 삼익악기(악기 원가 제공), 교육청(학교선정 지원), 지역기업(악기 비용 및 운영비), 인실련(사업모델 확산), 교과부(사업 추진 지원)
- ▶ (통기타 교실 운영)
 - (삼익악기) 학교에 통기타 원가 제공, 운영비 지원
 - (지역 기부 기업) 악기 구입 비용, 운영비 금전 기부

참고문헌

참고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성숙 (2007). 예술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역할: 생명력 회복을 위한 미술교육의 제안. *조형교육*, 30, 1-20.
- 김숙정 (2009). 학교정책에서 학교예술교육 전망과 과제. *모드니예술*, 263~266.
- 김정희 (2004).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적용방안. *한국교과교육학회*, 제1집, 60-72.
- 김정희, 김해경 (2010). 파트너십에 기반 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와 구조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4(1), 93-122.
- 김염 (2010). TV뉴스를 활용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7(1); 59-80.
- 김용예 (2009). 학생기 음악의 창의적 역할에 관한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 3(2); 60~62.
- 김용희 (2005). 미국 음악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29호, 35~38.
- 김정효 (2011). 협동적 미술 활동을 통한 평화교육의 실천: 키즈 게르니카 평화의 벽화 프로젝트. *미술교육연구논총*, 제29집.
- 김해경 (2007). 벽화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 또는 가능성. *미술교육논총*, 21(3), 267-288.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2010).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예술교육활성화 기본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2). 『일상을 바꾸는 문화예술교육: 학술포럼 자료집』
- 석문주 외 (2010). 외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8(2); 1-19.
- 신세례 (2011). 초등미술교육의 인성교육적 측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과 예술: 학술포럼 자료집』 pp. 113-122.
- 양건열 외 (2004). 예술의 힘. 서울: 문화관광부.
- 양종모 (2012).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활동의 방법 제언. 『예술과 인성교육, 그리고 실천과 제: 학술포럼 자료집』 pp. 1-28.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우주희 외 (2009).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인선 (2011). 대한민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예술지원정책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2012). 미술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의미 고찰. 미술교육연구 제30집 1호.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 이창환 (2001). 예술과 인성교육. 예술문화연구, 11(1); 308~344.
- 임학순 외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체계화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조대훈, 이수미 (201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사회과 교육, 51(1); 109-122.
- 정여주 (2007). 고교생 인터넷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 연구: 통합예술치료접근.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연희 (2010). 미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역량. 미술교육논총, 24(1); 1-25.
- 정현일 (2009). 미술교육 연구를 위한 방법론 고찰. 미술교육논총, 23(3); 53-79.
- 정현주, 정여주, 김나영 (2006). 방과후 학교의 치료교육 실태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방안 연구. 대통령비서실.
- 정현주 (2008). 예술치료교육 적용방안 및 모형개발 연구. 서울시교육청.
- 정현주, 정여주 (2008). 예술치료교육 모형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 정현주 (2011). 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태진미 (2010). 문화예술교육 정책실현을 위한 학교음악교육의 개선 과제. 예술교육연구, 8(2); 65-79.
- 통계청 (2012). 2011년 사교육비 결과조사 결과. 서울: 통계청.
- 허정임 (2007). 예술교육에서의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미학적 탐구: 듀이와 도이치의 미학적 탐구를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제21집, 275-294.
- 한은실 (2008). 예술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른 학교 및 사회예술교육의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다(2010). 서울: 한국예술교육진흥원.
-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2006). 서울: 한국예술교육진흥원.
- 현주 외 (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2009-09.
- 홍수현, 김경희 (2006).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학생의 정서지능과 대인불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3(4), 755-780.
- Anderson, T. & Milbrandt (2004).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 McGraw-Hill Companies.

Blandy & Bolin (2001). Histories of Community-based Art Education,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Bröcher, J. (1997). Kunsttherapie als Chance. Heidelberg: Edition S.

Bröcher, J. (1999). Bilder einer zerrissenen Welt. Heidelberg: Edition S.

Fitzpatrick, K. R. (2012). School-Based Management and Arts Education: Lessons from Chicago.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113: 106–111.

Neuperud, R. (Ed.). (1995). Context, content, and community in art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Richter, H. G.(1984): Pädagogische Kunsttherapie. Grundlegung, Didaktik, Anregungen. Düsseldorf.

Stepney, S. (2001). Art Therapy with Students at Risk.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Susan Hallam (2010). The power of music: It's impact on the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8(3); 269–289.

Tavin, K. & Anderson, D. (2003). (popular) visual culture: Deconstruction Disney the elementary classroom. Art Education, 56(3),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홈페이지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v.go.kr>

신문기사

[종합뉴스]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지수, OECE 중 최하위. <조선일보> (2012.5.6. 15:57),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